

2020학년도 고교학점제 우선 도입

# 마이스터고 학점제로 다시 도약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융합형 기술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 교육과정 이수 기준 '단위 → 학점'
- 융화·심화교육 활성화
- 전공 분야의 폭넓은 학습경험 제공
- 책임교육 강화, 과목별 직무역량 보장

## 행복한 교육



Vol. 446. 2019. 9.



디지털 세상,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국 최초 공립 숲유치원 '세종 솔빛숲유치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 Story

SEPTEMBER 2019 Vol. 446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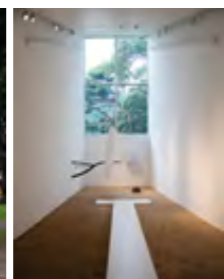


20



## COVER STORY

지난 3월 공립 숲유치원으로는 처음으로 세종시에 솔빛숲유치원(원장 조미희)이 문을 열었다. 만3~5세 혼합반으로 구성된 8개 반 139명의 유아들은 매일 숲으로 탐험을 떠난다. 숲에서 뛰어놀며 배우고 서로 배려하며 자연과 소통하는 법을 배운다. 괴화산 숲 교실로 가는 길에 호기심이 발동한 아이들이 밧줄에 매달려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24



32

74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 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Contents

## 특별기획

- 02 디지털 세상,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 04 가짜뉴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06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디지털 시민성
- 10 학교 미디어 교육 현장\_경기 소명여고
- 14 '미디어' 합리적으로 소통·참여하는 민주시민 기른다
- 17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해외 동향

## 현장이야기

- 20 꿈이 영그는 현장 전국 최초 공립 숲유치원 '세종 솔빛숲유치원'
- 24 삶과 교육 민재식 울산 삼일여고 교사
- 28 우리교실, 프로젝트 서울교대부설초교 장현정 교사의 메이커교육
- 32 아하! 진로체험 글로벌지식협력단지 경제발전 체험교육
- 34 명예기자 리포트 나는 '타조 증후군'일까? 외

## 정책이야기

- 38 교육부 JOB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을 지원하는 '교원정책과'
- 42 이슈 1 제9회 e-ICON 세계대회 열려
- 46 이슈 2 2019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개최
- 48 초점1 교육부·국가교육회의 등 4개 기관 공동 '2030 교육포럼'
- 49 정책 토크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 54 대학교육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대학혁신 지원 방안」
- 58 초점2 현 고1학생 위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 59 꽃 피는 교육자치 평화·통일의 꿈 품고 백두산 정상에! 외

## 정보이야기

- 62 교육포커스 2030 대한민국 교육과 우리의 미래 @늘어나는 폐교, 마을 속으로
- 66 교육 소확행 탁 쌤과 산골 학교 아이들의 좌충우돌 한 해 살이
- 68 아이의 다락방 '아동'에 빠진 철구
- 70 교사상담실 친구 같은 선생님 vs 만만한 선생님
- 72 이야기 인문학 부정 속의 긍정, 절망 속의 희망을 찾아서
- 74 일상의 쉼표 멋스럽게 조각된 도시, 양주
- 78 뉴스 브리핑 내년부터 전국 마이스터고 51개교 고교학점제 도입 외
- 80 행복 게시판



# 디지털 세상,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 1. 가짜뉴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디지털 시민성
- 3. 학교 미디어 교육 현장 경기 소명여고
- 4. '미디어' 합리적으로 소통·참여하는 민주시민 기른다
- 5.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해외 동향

미디어 콘텐츠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시대, 우리는 실 새 없이 새 콘텐츠를 소비하고 때로는 새 콘텐츠를 만들어낸다. 특히 최근에는 휴대전화 보급의 저연령화와 1인 미디어 확산 등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말 그대로 디지털 세상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얼마나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의 디지털 시민의식은 어떠한지 돌아보게 된다. 혹시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거짓된 정보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양산하고 있지는 않았나? 여기서는 왜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한지 그 의미를 살펴보고,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현 주소와 학교 미디어 교육 관련 정책, 그리고 해외의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소개하고자 한다.



모델 경기 소명여고 학생들

# 가짜뉴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짜뉴스’로 인해 우리사회가 계속 소란하다. 영어 ‘페이크 뉴스(fake news)’의 우리말 번역어인 ‘가짜뉴스’는 사실 그 실체가 모호하다.

원래는 뉴스보도 형식을 차용한 의도된 거짓 정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시작됐으나, 지금은 뉴스기사 형식일 필요도 없고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도 중요하지 않게 됐다. 올해 초에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에서 발간한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뉴스’와 ‘가짜뉴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시민들은 좁은 의미의 가짜뉴스 즉, 페이크 뉴스뿐만 아니라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주로 유통되는 일명 ‘짜라시’, 언론사가 생산한 품질 낮은 콘텐츠(낚시성 기사, 어뷰징 기사, 광고성 기사 등)도 가짜뉴스로 인식하고 있고, 언론이 취재과정에서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아서 만들어지는 오보까지도 가짜뉴스로 간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사실 아닌 내용 포함되면 ‘가짜뉴스’로 인식

학술적으로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와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오정보(misinformation)가 구분되지만, 일반인들에게 이러한 구분은 큰 의미가 없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돼 있는가가 관건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보통 사람들은 뉴스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벌이만을 목적으로 애초에 사실 전달은 안중에도 없고 취재과정 없이 만들어지는 저급한 뉴스 콘텐츠 또한 ‘진짜뉴스’와는 구별되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적으로, 나쁜 정보, 품질 낮은 정보면 다 ‘가짜뉴스’로 인식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가짜뉴스’의 범위를 이렇게 넓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나쁜 현상일까? 위에 제시된 그 어떤 정보 유형도 이용자에게 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짜뉴스’를 넓은 범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민들이 나쁘고 해로운 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유리한 측면도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나쁜 정보들 가운데 좁은 의미의 ‘가짜뉴스’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해로운 정보를 다 ‘가짜뉴스’라고 전제하고 그러한 품질 낮은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가짜뉴스’인가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다소 소모적일 수 있으며,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가짜뉴스’를 포함한 나쁜 정보들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다.

## 정보 분별력 키우는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우리사회가 ‘가짜뉴스’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는 국가가 공적으로 개입해서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것이다. 관련 법률을 제정해 가짜뉴스를 생산 및 유포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통해 ‘가짜뉴스’의 범람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가짜뉴스’의 범위와 정의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규정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난점이 있다. 두 번째는 SNS, 메신저와 같이 ‘가짜뉴스’가 주로 유통되는 온라인 공간인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적 규제 노력이다. ‘가짜뉴스’로 확인된 콘텐츠를 삭제 내지 임시 차단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가짜뉴스’에 노출되고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 최근 들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들에게 공적 책무를 부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자율’ 규제는 어디까지나 ‘자율’일 뿐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마지막 세 번째 대응 방법은 미디어 이용자 개개인이 정보의 품질을 평가하고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만으로는 ‘가짜뉴스’를 다 걸러낼 수 없고, 따라서 이용자들이 정보 분별력을 함양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주장도 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돼 왔다.

결국 일반 시민들 선에서 ‘가짜뉴스’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품질 낮은 정보를 마주했을 때 이를 알아차리고, 나아가 정보 전반에 있어서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 및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라 정리해볼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미디어 리터러시의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개인적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 습득이 가능하겠지만 그보다는 공교육과정에서 학습하는 것이 사회 전체로 봤을 때 훨씬 효율적인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 포괄적 정보 분별력을 포함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다면 결국 시간이 흐름

하나, 국가가 공적으로 개입해 가짜뉴스 규제  
둘, 온라인 공간인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적인 규제 노력  
셋, 미디어 이용자의 정보 품질 평가·분별 능력 함양

에 따라 전 국민이 교육의 혜택을 누리고 정보를 좀 더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 분별력은 단기 교육으로 함양할 수 있는 단순한 기능이 아니다.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체계적 커리큘럼으로써 교육을 받을 때만이 그러한 능력이 분명하게 발휘될 수 있는 복합적인 고등 역량에 해당한다. 따라서 초·중등교육 전반에 걸쳐서 학령과 교급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나도 모르게 가짜뉴스 퍼트리진 않았나?

끝으로, ‘가짜뉴스’ 대응과 관련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가짜뉴스’ 문제가 단순히 이용자가 그것을 제대로 분별해서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가짜뉴스’는 각종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자들 사이에서 급속히 퍼져나가는 것이 특징이다. 한 마디로 이용자들이 ‘가짜뉴스’ 확산에 알게 모르게 기여하고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정보가 있으면 내 단계에서 공유를 멈춤으로써 ‘가짜뉴스’가 내 소셜네트워크상에서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만으로도 전체 소셜미디어 생태계를 놓고 보면 ‘가짜뉴스’의 범람을 상당히 막을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책임 있는 미디어 이용을 배우고 이것이 공유와 소통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한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품질 낮은 콘텐츠의 무분별한 유통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다. ⑦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디지털 시민성

## MEDIA



미디어는 이제 우리의 일상을 이루는 중요한 환경이 되었다. 연구를 위해서 어린이·청소년을 만나면, 그들은 더 이상 ‘미디어가 뭘데요?’라고 묻지 않는다. 미디어가 단순한 테크놀로지 혹은 도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상의 일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미디어를 둘러싼 여러 공간들에서 어린이·청소년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다. 영상과 글, 이미지, 하이퍼 링크 등 다양한 표현 양식을 결합하여 소통하고 있기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깊이 찾아보고 몰입하기도 하며, 흥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활동하고 그들과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린이·청소년은 기성세대가 알지 못하는 위험을 겪기도 하고 새로운 역량을 함양할 기회를 얻기도 한다.

이처럼 미디어 기반 환경 안에서 건강하고 즐겁게, 나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생활하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이러한 능력, 다시 말해 미디어 환경에서 활발히 소통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능력의 결합을 우리는 미디어 리터러시라 부른다.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하다

미디어 환경에서 소통하고 생활하기 위한 능력인 미디어 리터러시는 비단 어린이·청소년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미디어 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미디어가 우리의 삶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함양은 생애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의 어린이·청소년을 ‘디지털 세대’라 부르며 당연히 영상이나 디지털 미디어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세대라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디지털 세대’인 아이들을 만나보면 그들 안에서도 경험의 차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의 차이, 능력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금의 미디어 환경, 특히 인터넷 기반의 여러 디지털 미디어 공간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고려하며 구성된 공간이 아닌 경우가 많다. 상업주의에 기반을 둔 디지털 미디어 공간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

하나, 미디어 환경에서 필수적인 ‘핵심 개념’ 가르쳐라  
둘, 성찰 중심 교육이자 질문 중심 교육이 되도록 가르쳐라  
셋, 디지털 환경에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도 가르쳐라

서 아이들은 자신의 권장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미디어 이용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교육의 장, 특히 학교 교육에서 아이들이 경험하는 미디어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아이들 사이의 미디어 격차를 줄여서 디지털 시민으로서 활동하게 되는 어린이·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 PRODUCER



### 미디어 이용자에서 생산자로 성장

흔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 하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읽어내고 평가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전통적으로 읽기와 쓰기 교육을 모두 강조하고 있다.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읽는 능력을 가진 학습자는 자신만의 콘텐츠를 더 잘 만들어낼 수 있고, 동시에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본 경험을 토대로 미디어를 더 깊이 읽어낼 수도 있다. 이는 교육 참여자를 미디어를 이용하는 이용자로서뿐 아니라 미디어를 만들고 미디어 환경 구성에 기여할 생산자로 여김을 의미한다.

## EDUCATION



미디어 체험



미디어 제작 현장

## WHAT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그렇다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한다고 할 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현장 교육자를 만나 이야기해보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선뜻 교육을 시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미디어 전문가만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혹은 미디어 교육을 진행해 온 영미권 국가의 사례를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다루어야 할 '핵심 개념'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정 미디어 장르나 테크놀로지에 대한 구체적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보다, 미디어 환경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미디어 경험을 교육으로 끌어들이 수 있게 하는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 개념은 미디어 텍스트(콘텐츠)와 미디어 맥락(context, 즉 미디어가 생산, 유통, 소비되는 맥락)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미디어

텍스트와 관련된 핵심 개념은 '재현'과 '미디어 언어'인데, 각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현'은 모든 미디어는 누군가의 관점이 포함되어 있는 선택의 결과임을 의미한다. 둘째, '미디어 언어'는 모든 미디어 콘텐츠는 이미지, 소리, 영상, 속도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메시지를 전달함을 의미한다.

미디어 맥락과 관련된 핵심 개념은 '미디어 생산자(산업)'와 '미디어 이용자'이다. '미디어 생산자'는 대부분의 미디어 콘텐츠가, 그리고 미디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플랫폼이 이윤을 추구하는 미디어 산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됨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더불어 '미디어 이용자'는 미디어를 소비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 선호에 따라 같은 미디어 콘텐츠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그리고 모든 미디어가 누군가를 타깃으로 특정하여 만들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은 핵심 개념은 대중 매체 시대에 자리 잡힌 것이므로, 지금의 미디어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확장, 변형되는 과정에 있다.



미디어 텍스트 읽기

## HOW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이처럼 핵심 개념을 출발점으로 하여 다양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지식 전달 교육이 아니라, 성찰 중심의 교육이자 질문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글을 열며 이야기하듯 지금 어린이·청소년은 일상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미디어를 이용하고 생산하며 경험하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학습자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린이·청소년의 미디어 경험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방법은 성찰 중심의 교육이다. 어린이·청소년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미디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미디어 경험을 비교해보며, 미디어가 자신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성찰하고 미디어의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하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교사가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닌, 교육자와 교육 참여자가 서로를 가르치고 함께 배우는 교육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상호 교육이 가능하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기획, 진행함으로써 교사들은 학습자는 서로의 미디어 이용문화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미디어에 대해 함께 배워나갈 수 있다.

### 디지털 시민성을 키운다

지금까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왜 필요한지, 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천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다루어보았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디지털 시민이란 단순히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민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은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까, 디지털 환경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는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주도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생활해나가는 시민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학교 안 다양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자와 학습자, 가정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갈 때이다. ②

## DIGITAL CITIZENSHIP



# 학교 미디어 교육 현장\_경기 소명여고

## 교실로 들어온 미디어 콘텐츠

### “웹툰·유튜브가 수업 교재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은 이제 누구나 실감하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지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실제 교실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소명여자고등학교(교장 이순복)의 김면수 교사(국어)는 지난해까지 3년간 교과연구회에 참여해 동료 교사들과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연구해왔다. 김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현장을 들여다보자.

**12345**  
소명여고 김면수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현장. 김 교사는 학생들이 즐기는 미디어 콘텐츠를 수업 주제로 가져와 흥미와 공감을 이끌었다. 올해 초에는 교과연구회 교사들과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교재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사진2)을 출판하기도 했다.

지난 8월 30일 3교시 ‘언어와 매체’ 시간, 소명여고 2학년 3반 교실 스크린에는 요즘 인기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의 한 장면이 틀어졌다. 마돈나의 노래가 나오고 복고 패션을 한 주인공들이 화면을 채운다.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는 레트로를 요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뉴트로’ 코드로 인기를 끌고 있다.

교탁에 선 김면수 교사는 “1980년대의 이미지가 유행하는 것은 풍족하고 여유로웠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의 결핍을 드러낸다. 요즘 미디어 콘텐츠를 분석해보면 이처럼 레트로 요소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유행하는 80년대 시티팝 장르의 음악, 레트로 디자인을 차용한 라면 패키지 등 학생들에게 친근한 콘텐츠를 예로 들었다. 학생들 사이에서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다”, “유튜브 추천 동영상에서 본 적 있다.”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김 교사는 “레트로가 확산하는데 미디어의 역할이 무척 크다. 미디어를 통해 레트로 콘텐츠가 사회 전반적으로 유행하게 됐는데, 이는 네트워크 효과로 이어진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김 교사는 레트로 이미지를 차용해 학교 홍보 영상 만들기를 다음 시간의 수업 과제로 내걸었다.

#### # 사례

**YouTube**  
‘유튜브’를 활용한 미디어 수업-편협한 정보에서 벗어나 세상에 참여하기

#### STEP 01 나의 유튜브 시청 바라보기

하루 평균 시청 시간, 주로 찾아보는 채널, 즐겨 보는 콘텐츠, 유튜브를 보는 이유, 나에게 유튜브란? 등의 항목에 답하면서 유튜브를 평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분석해본다. 반 친구들이 작성한 조사 결과를 집계해 ‘우리 반의 유튜브 시청’ 결과를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하고, 어떤 경향성이 나타나는지 토론해본다.

#### STEP 02 인기 동영상 분석하기

유튜브 ‘인기’ 탭을 클릭해 인기 있는 동영상 중 5개를 골라 제목, 게시자, 조회수, 콘텐츠, 간략한 내용 요약을 작성해본다. 해당 영상에 달린 댓글 중 인상 깊었던 댓글을 3개씩 골라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인기 동영상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본다.

#### STEP 03 유튜버의 정보 편향성 살펴보기

‘페미니즘’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발표하는데, 조사 도구로는 모듈별로 ‘유튜브’, ‘인터넷 포털’, ‘책’ 중 하나씩 선택한다. 같은 주제에 대해 조사한 내용들을 서로 비교하고, 각 미디어를 통해 얻은 정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해본다.

#### STEP 04 유튜버가 되어 영상 올려보기

나만의 콘텐츠를 찾기 위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 꿈꾸고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해본다. 콘텐츠를 정했다면 동일한 콘텐츠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유튜버들의 동영상을 분석해 장점을 정리하고, 차별화 전략을 세워본다. 채널명과 영상 시청자, 촬영 장소, 주요 콘텐츠를 담은 기획안을 작성한 후 동영상을 직접 제작해본다.

### 무분별하게 미디어에 노출된 학생들

김 교사는 이처럼 미디어 교육에서 현시대를 대변하면서 학생들의 흥미와 공감을 일으키는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기 아이돌의 뮤직비디오, 웹툰, 유튜브 방송, 영화 등 학생들이 실제로 즐기는 대중문화 콘텐츠를 수업의 주제로 삼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분석하면서 비판적 사고를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김 교사가 미디어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학생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를 가까이에서 지켜봐 오면서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미디어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인 만큼 미디어 중독도 심하고,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 학교에서는 등교 후 스마트폰을 걷고 있는데, 상담을 해보면 SNS와 유튜브를 하느라 밤을 새는 학생들이 부지기수라고 한다.

“최근 ‘엄마 몰카’라고 해서 초등학교생들이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엄마를 대상으로 한 선정적인 몰카를 유튜브에 올려 이슈가 됐었죠. 분명 심각한 범죄 행위인데도 아이들은 죄의식 없이 이런 영상을 올리고, 또 소비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할 수 없어요. 건강하게 미디어를 이용하고 생산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는 학생들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평소 1인 미디어 방송을 즐겨본다는 임나비 학생은 “유튜브에서는 거짓 정보를 내보내도 사람들이 쉽게 선동되고, 댓글을 보면 순화되지 않은 표현도 거리낌 없이 한다.”라며 올바른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 고전문학 대신 대중문화 콘텐츠로 ‘살아있는 수업’

국어 교과를 담당하는 김 교사는 교과 수업에도 미디어 교육을 연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전에는 염상섭의 <삼대>를 읽어오는 것을 방학 숙제로 냈는데, 옛 소설을 읽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보며 대신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이나 웹툰 <여중생A>처럼 학생들이 재미있어하면서 현실적이고 의미있는 내용을 담은 작품을 보고 분석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했다.

김 교사는 “어떻게 보면 고전문학이 현대 대중문화 콘텐츠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견일 수 있다. 학문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현실과 가깝고 생각할 지점이 많은 작품을 다뤄 보는 것도 어쩌면 지금 시대에 맞는 ‘살아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콘텐츠에는 이유가 있고, 일단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비판적으로 보는 눈도 기를 수 있다는 것이 김 교사의 지론이다. 그는 “미디어를 비판

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전통적인 국어 교육과도 맞닿아있다. 콘텐츠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고 그 뒤에는 작가가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 이는 국어 시간에 문학작품을 분석해온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덧붙였다.

### 기존 미디어 교육, 내용 부족·현실 미반영 한계

아직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교사도 기존의 미디어 교육에 대해 “교과서 안에서 다루는 것은 단순히 매체 간 차이점이나 효과를 비교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매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유튜브, SNS처럼 요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에 대한 교육이 전무하다는 것.

이에 김 교사는 교과연구회 교사들과 합심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교재를 만들었다. 올해 초 출판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이 그 결과물이다. 뮤직비디오, 게임, 광고, 소셜 미디어, 유튜브 등 각 매체를 중심으로 놓고 관련 수업을 구성했다. 교재를 만들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나의 삶과 연관짓기’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단순히 미디어를 소비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는 설명한다.

#### [ 김면수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TIP ]

- 1. 미디어를 주제로 활용하기** 미디어를 특정 교과를 위한 소재가 아니라 미디어 그 자체가 주제가 되도록 한다. 특히 학생들이 즐겨보는 유튜브, 웹툰 등의 콘텐츠를 수업의 중심으로 삼아 관심도를 높인다.
- 2.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미디어 콘텐츠 속 기호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속에 어떤 의도가 담겨있는지 논의한다. 특정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된 정보는 다른 매체들과 비교하며 ‘팩트체크’ 해본다.
- 3. 미디어를 삶과 연관짓기** 미디어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산자로서 나와 공동체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활동을 구성한다.

### ‘미디어’ 그 자체가 하나의 과목으로

그렇다면 앞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까. 김 교사는 정보의 ‘팩트체크’와 대중문화 속 이미지 기호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미디어 환경이 잘 갖춰진 만큼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학생들의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능숙하고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 적절한 교육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것이 안타깝죠. 관련 교수·학습자료가 갖춰지고 나아가 ‘미디어’ 그 자체가 하나의 과목으로 만들어지면서 활발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 ‘미디어’ 합리적으로 소통·참여하는 민주시민 기른다 학교 미디어 교육, 체계적으로 지원 나서

교과 연계형, 주제 중심 통합형 교수·학습자료 지원  
도서관·방송국·대학 등 미디어 교육 연계망 강화  
학교 미디어 교육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운영

디지털 기기의 발달에 따라 학생들의 삶에 미디어가 깊이 자리매김하였다.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청소년 10명 중 8명 이상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데, 청소년에게 스마트폰은 통화만이 아니라 SNS, 게임, 영상 시청 등을 위한 기기이다. 또 진로교육 현황조사(18)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희망직업으로 유튜버가 새롭게 등장하였고, 전년도에 이어 만화가·웹툰작가가 포함되기도 하였다.

미디어의 영향이 커지는 만큼 가짜뉴스, 혐오표현, 미디어 과의존 등 미디어로 인한 부작용도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미디어를 슬기롭게 이용하고, 합리적으로 소통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학교 미디어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학교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고, 미디어로 제공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나아가 미디어를 활용하여 정보와 문화를 생산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의미한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교 미디어 교육을 위한 기초연구(15), 교과서 단위 개발을 위한 자료 보급(16), 연구학교 운영(16~18), 범교과 주제 연계형 교수·학습자료 개발(18)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미디어 교육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미디어 교육 내용이 특정 교과에 편중되는가 하면 어떤 내용은 여러 교과에 중복되기도 하였다. 또 전문 인력이나 시설 등 미디어 인프라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시민단체 등 주관으로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교육부·교육청 등과의 연계나 홍보가 어려웠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미디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사, 미디어 교육 전문가, 정책자문단, 교육청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이하 내실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지난 7월에 발표된 내실화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 교육과정 통한 미디어 교육 지원

미디어 교·강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미디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과별 수업 및 교과 연계 수업을 위한 자료, 사진, 영상물, 음원 등 수업 자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정현선·김아미, 2017). 학교 교육에 미디어 교육이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수업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미디어를 가르치기 위한 교재는 충분한 편이지만 학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자료나 교과 내용과 미디어 교육 내용을 연계한 수업 자료는 매우 부족하다.

이번 내실화 계획에는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미디어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교과 연계형 미디어 교수·학습 자료와 주제 중심 통합형 자료를 개발하여 학교 내 미디어 수업을 지원하고, 미디어 제작 및 향유를 위한 학교 내 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교육과정 총론에 비판적 이해 등 미디어 관련 역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고교학점제와 연계하여 선택과목을 신설하고 시·도교육청 차원의 인정도서 개발·선정을 지원하는 등 국가 및 시·도 수준 교육과정을 통한 미디어 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 학생의 미디어 교육 참여 확대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여러 유형의 콘텐츠로 표현하는 경험은 학생의 시민성에 영향을 미친다. 미디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전제되었을 때 민주적이고 숙의적인 시민성 발현이 가능하다(안정임 외, 2013). 학생이 미디어를 제작하거나 체험하는 활동은 학습 내용을 내면화하고, 학생이 미디어 사용의 주체로 성장하는 기반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번 내실화 계획에 따라 미디어를 현명하게 생산하고 소비하기 위한 교육, 사회 참여 학습은 물론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특히, 개인적·지역적 여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미디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 도서관, 방송국, 교육청, 대학 등 지역 내 미디어 교육 연계망을 강화할 것이다.



1 영화 기본 지식 이해  
2 영화 제작 체험

### 교사의 미디어 교육 역량 강화

교사들은 교과 수업이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미디어 교육을 실천하거나 교원학습공동체에서 미디어 수업을 연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디어 교육 관련 성취기준은 특정 교과나 내용에 한정되고 미디어 교육은 일부 교사의 미디어 교육 역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내실화 계획에서는 현장성을 강화하는 교원 연수와 맞춤형 연수가 포함되었다. 미디어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현장지원단을 구성하고, 미디어 연수와 미디어 수업 사례를 확산하며 교사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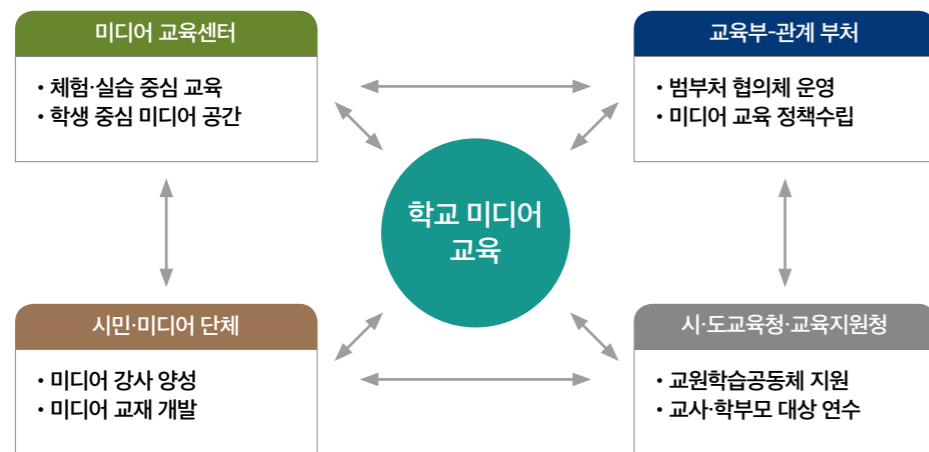


3 카드뉴스 제작(교원연수)  
4 뉴스 제작 체험(교원연수)

### 학교 미디어 교육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학생의 삶에 의미 있는 학교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 정부 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교육부와 관계부처,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시민 단체와 미디어 교육 단체, 그리고 각 지역별 미디어 교육 센터 간 협업 체계를 마련하여 학교 미디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그림] 학교 미디어 교육 지원 체계



지능정보사회를 살아갈 민주시민에게 미디어에 대한 역량과 자질은 필수 요소가 되었다. 단순히 미디어를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작하는 것에서 나아가 비판적 사고, 합리적 의사소통, 문화적 감수성 등을 기르는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 미디어 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현명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해외 동향



### 사회를 읽고, 이해하고, 소통하는 역량

미디어 리터러시는 텔레비전, 영화의 등장과 함께 그 개념이 시작되었지만, 그 근간은 '리터러시'에 있다. 문자 언어는 과거부터 인간이 사회를 규정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했으며, 문자언어에 대한 리터러시는 사회를 살아가는 필수역량이기도 하다. 미디어 리터러시 또한 '영상'이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구성하고 재현하는 사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은 그래서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으로 제기된 바 있다. 텔레비전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소셜미디어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등은 각기 새로운 미디어에 방점을 두고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기 미디어 리터러시가 새로운 언어인 '영상'미디어의 재현방식에 대한 이해를 위해 시작되었다면,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점차 인간과 인간, 사회를 연결하고,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필수 역량이 되면서 그 의미도 확장되었다. 그래서 미디어 리

터러시는 인간과 미디어의 관계, 그리고 인간이 미디어를 통해 인간, 사회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위한 역량에 있다. 미디어가 재현하는 사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역량, 미디어를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역량 등으로 확장된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디지털 미디어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소통 도구가 자기표현의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등장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한 대처 역량과 이들 미디어와 함께 살아갈 미래의 필수 역량으로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18년 5월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미디어교육지원법안'이 발의되었다. 또한 지난 7월 29일에는 교육부에서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해외의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과 동향



이 같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해외에서도 이미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18년 3월 유럽평의회는 EU 회원국들에게 ‘미디어 다원주의와 소유의 투명성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

표했다.<sup>1)</sup> 이 내용에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입법 조치를 포함한 정책을 실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상업적 콘텐츠와 왜곡된 정보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과 판별 역량,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입법을 포함한 적극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의 도입 △1년 단위 혹은 다년 단위의 액션플랜 수립 △미디어 리터러시 촉진을 위한 기회와 자원 확보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지원시스템의 촉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인 국립미디어센터 ‘클레미(CLEMI)’를 통해 미디어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교육부 산하 기관인 클레미의 경우에는 교사를 위한 교재 제작, 교육지원, 행사 기획, 수준별 미디어 교육 로드맵 등을 제시하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 미디어 교육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학교, 미디어, 공동체(시민사회)에서의 원활한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초기 교사와 학생 대상에 초점을 두던 교육을 최근에는 학부모 대상으로 확대시키고 있으며, 기자들 대상의 교육에 참여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핀란드**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멀티리터러시’로 핵심역량으로 다루고 있다. 핀란드의 2016년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에 따르면, 핵심역량으로 사고와 학습, 문화적 능력, 상호작용과 소통, 자기관리와 타인의 돌봄, 일상생활 관리, 멀티리터러시, ICT 능력, 업무생활과 경영능력,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참여로 제시하고 있는데, 주로 핀란드 모국어와 문학에 포함되어 멀티리터러시를 중심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해석하고 제작하는 것, 그리고 문화적 현상에 대한 이해로 설명하고 있다(Fi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2013).



**호주**의 경우에는 모든 주의 초·중등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포함되어 있다. 중등교육과정에 ‘미디어 연구’를 서호주는 1974년, 빅토리아주는 1980년대 후반부터 도입해서 실행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국가 교육과정(ARCAR)의 예술교육과정인 ‘미디어 아트’ 과목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다루고 있다.

호주의 교육과정에서도 역량으로 제시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문해력(Literacy), 수리력(Numeracy), ICT 역량(ICT Competence), 비판적·창의적 사고(Critical and Creative Thinking), 윤리적 행동(Ethical Behavior), 개인적·사회적 역량(Personal and Social Competence), 문화상호간 이해(Intercultural Understanding)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중에서 문해력에서는 자신감 있게 의사소통하기, 목적에 맞는 시각적 자료·디지털 자료 만들기를 다루고 있고, ICT 역량에서는 아이디어나 정보를 효과적으로 탐구하고 만들기, 의사소통하기로 규정하고 있다(ACARA, 2010).



**캐나다**의 경우에는 1980년대 후반부터 미디어 리터러시를 초·중·고등학교에 의무적으로 편성하기 시작했다. 교사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다양한 자원 공유 등을 통해 초기 MNET(media awareness network)로 시작한 미디어 리터러시 웹사이트가 현재 MediaSmarts<sup>2)</sup>를 통해 다양한 교육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퀘벡주 교육과정 중 ‘광범위한 학습영역’으로 ‘건강과 웰빙’, ‘개인적·직업적 계획’, ‘환경의식 및 소비자 권리’, ‘미디어 리터러시’, ‘시민성과 공동체 삶’을 내세우고 있다(소경희·이상은·박정열, 2007). ‘범교과적 역량’에서는 지적역량, 방법론적 역량, 개인적·사회적 역량, 의사소통 관련 역량 등을 다루고 있다(Ministere de l'Education, 2001, 2004).

이외에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학교 교육과정에서 반영해서 실천해오고 있다. 이미 1980년대부터 학교 교육과정에 모국어 중심의 미디어 리터러시뿐만 아니라, A레벨 단계에서의 독립 교과로서의 ‘미디어 연구(Media Studies)’가 시행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 2009년 ‘디지털 브리튼(Digital Britain)’ 보고서 등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퓨처랩(Future Lab) 등을 통해 학교 교육 현장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다.

### 디지털 시민교육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의 함의

해외의 경우에 이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고, 이는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기타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행정부처, 유관기관, 시민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AI, 빅데이터, 알고리즘 등과 관련해서 상업화된 AI로 인한 불평등에 대한 논의들도 확산되고 있으며, 유

네스코, 유엔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포용 사회 구현’을 위한 전략으로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 세계적 추세에 하나로서 교육 혁신의 키워드인 ‘교육역량’들의 중심에는 항상 미디어 리터러시가 전제되어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국내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시민성 즉, 디지털 시민교육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은 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것을 말하며,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기반에서부터 모든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변화함을 의미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 최근 새로운 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통한 인간의 소통, 공동체의 생성과 변화, 그리고 사회의 구성과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변화의 중심엔 인간이 있고, 인간은 기술과 사회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디지털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미래사회를 살아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은 필수 역량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학교 교육에서 미디어를 통해 주체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다양한 경험들을 쌓아가는 것은 디지털 시민 교육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교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시민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정책 방향의 설립과 구체적인 계획 수립,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

1) <https://rm.coe.int/1680790e13>  
2) <http://mediasmarts.ca/>

# 전국 최초 공립 숲유치원 '세종 솔빛숲유치원' 생명의 숲, 대자연을 품은 아이들



숲 교실 가는 길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대자연이 주는 넉넉함과 고운 심성을 키울 수 있는 숲유치원은 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다. 솔빛숲유치원(원장 조미희)은 세종시 반곡동 괴화산 인근에 지난 3월 등지를 틈 신설 유치원으로 전국 최초의 공립 숲유치원이다. 만3~5세 혼합반으로 구성된 8개 반 139명의 유아들은 날마다 괴화산에 오른다. 아니 숲 교실로 들어선다. 조잘조잘 아이들의 이야기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 만나는 모든 생물이 친구가 되고 만나는 모든 자연물이 놀이터가 되는 곳. 바로 숲이다.

## 숲은 우리의 친구, 우리의 놀이터

“와~ 지렁이다.”

“오늘 비가 와서 지렁이가 물을 마시러 나왔나봐.”

“근데, 엄청 커. 대왕지렁이다.”

숲길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던 아이들의 발걸음이 뚝 멈췄다. 오늘 숲에서 만난 첫 친구는 지렁이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지렁이를 그냥 지나칠 리 없다. 비웃을 입을 채 한참을 쪼그리고 앉아 꿈틀꿈틀 움직이는 지렁이를 관찰한 아이들은 지렁이의 지상 외출에 나름 '물을 마시러 나왔다'는 답을 찾은 모양이다. 유난히 통통하고 길어 '대왕지렁이'라는 이름도 붙였다. 이처럼 자연과 교감하느라 숲 교실로 향하는 아이들의 발걸음이 종종 멈추지만 선생님은 그저 아이들이 자연을 발견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려준다.

괴화산에는 솔빛숲유치원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6개의 숲 교실이 있다. 괴화산은 자연 그대로지만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를 위해 산책로와 6군데의 숲 교실만큼은 가시나무, 뱀이 나올 것 같은 풀밭, 밤송이 가지 등을 사전에 정비하였다.

숲 교실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모험이 펼쳐진다. 맨손으로 나무를 오르기도 하고 비탈을 구르기도 한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숲 속을 달리고 때로는 나무그늘에 매달려 동화속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아이들은 숲에서 뛰어놀고 직접 체험하며 자연과 소통하는 법을 배운다.

단풍1반 아이들이 멀리서 손님이 찾아왔다고 자신들의 숲

교실을 안내한다. “헬리콥터처럼 생긴 여기는 팔로 매달려서 빙그르르 돌고 뛰어노는 공간이에요.” “두 팔로 꼭 잡아가지 안 그러면 떨어져요.” “통나무가 쌓여있는 저곳은 벌레를 잡는 곳이에요.” “여기는 휴산 올라가는 곳이에요. 처음엔 장갑을 끼고 나무를 붙잡으며 올라갔는데, 지금은 밧줄이 생겨서 훨씬 쉬워졌어요.” 기울기 60도를 훌쩍 넘길 것 같은 휴산, 7세 누나가 먼저 밧줄을 잡고 휴산 정벌에 나섰다. 그 뒤를 5-6세 동생들이 따른다. 뒤처지는 동생이 없는지 한 번씩 살피고 축축한 땅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챙기는 것도 형님들 몫이다. “올라오느라 힘들었지?”하고 물었더니 이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짓는 아이들의 그 자신만만한 표정이란... 아이들의 손으로 완성한 숲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주도하는 놀이. 그 속에서 아이들은 배려를 배우고 작은 성취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밧줄타고 휴산 오르기



1 텃밭에 배추심기 2 자연이 바로 신나는 놀이터 3 “벌레친구를 소개합니다”



### 숲에서의 놀이는 언제나 신비롭다

숲속에서 은행2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무 아래에 떨어진 손가락보다 더 큰 애벌레를 발견한 은서 주변으로 아이들이 몰려들었다. 작은 손바닥 위에 나뭇잎을 올리고 그 위에 애벌레를 올렸다. “배고프지, 나뭇잎 밥 먹어.” “이름이 뭘까?” “선생님, 유치원으로 데리고 가서 키우고 싶어요.” “와~ 똥꼬가 꿈틀거려.” “나뭇잎 밥 먹고 은서 손에 똥 찼네. 하하.”

손정화 교사는 “우리 아이들은 모두 자신이 숲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어떤 놀이를 할지 아이들이 정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놀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지난 3월 숲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키 낮은 나

무와 넝쿨을 보고 꼭 지붕처럼 생겼다고 아이들이 나뭇가지를 가져와 아지트를 짓던 일, 아지트 이름을 두고 남자들은 ‘딱따구리’를 여자들은 ‘꽃무늬집’을 고집했으나 서로 한 발씩 양보해 ‘딱따구리대왕꽃무늬집’으로 이름을 짓던 일, 숲에서 땅을 파다보니 물이 나왔고 그래서 물웅덩이를 만들었던 일, 물웅덩이 옆에 미나리와 들깨를 심었던 일, 큰 나무에 외줄 그네를 만들었던 일 등 모두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냈고 힘을 모아 하나씩 이룬 결과다. 바로 스스로 발견하고 자연과 더불어 행복해지는 배움의 현장이다.

### 괴화산의 사계절을 배우고 기록하는 선생님

조미희 원장은 “올해 3월에 개교해서 이제 봄과 여름을 보냈다. 누리과정을 기본으로 괴화산의 사계절과 절기교



아이들은 유치원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운동장에 모여 맨발 걷기를 한다.

육을 통해 놀이교육을 해오고 있다. 아침 9시~오후 3시까지 운영하는데, 매일 숲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유치원 교실보다 숲 교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기에 교사들은 숲 전문가만큼이나 숲에 대한 이해와 생태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 교사들은 숲 전문가와 함께 바윗돌을 활용한 괴화산 역사, 괴화산에 자생하는 동식물 등 자연환경을 미리 탐색해 두고 각종 숲 관련 연수를 통해 숲 체험에 대비하여 역량을 키우고 있다. 또한 주 1회 전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날’을 통해 숲 체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배움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동아리를 결성해 자발적으로 아이들의 교육공간 정비를 도와주고 있다.

교육공동체의 이러한 노력으로 숲 교실에서 유아 중심의

놀이가 가능해졌다. 교사는 한 발 뒤에서 아이들이 더디지만 자연을 발견하고 관찰하고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다린다. 그리고 그 배움의 과정을 관찰하고 놀이가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관찰한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은 매일 기록한다. 일명 ‘성장중심기록화’이다. 이는 가정에 전달해 유치원-가정이 연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조미희 원장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다. 앞으로도 숲에서 오감을 통한 경험을 통해 느끼고 표현하는 감성교육, 타인의 감정과 실수를 이해하는 공감교육, 자연을 탐색하고 질문하며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탐구교육, 생태계와 자연의 변화 속에서 생명존중교육, 또래 및 연령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공동체성교육 등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한다. 생명의 숲에서 아이들은 대 자연을 품고 매일 조금씩 자라는 중이다. ②

민재식 울산 삼일여고 교사

## STEAM 연구에서 해외 교육봉사까지 배움과 가르침에는 그 끝이 없더라!

울산 삼일여고 민재식 교사는 지난 8년 동안 ‘한국형 STEAM 교육’ 전파에 매진해 왔다. STEAM 연구자로서 그의 행보는 국내는 물론 동남아 지역에서 교육봉사로까지 이어진다. 과학교사로서 최고 영예인 ‘올해의 과학교사상’을 수상했으며(2006년), 올해 5월에는 ‘대한민국 스승상’ 중등부문에서 근정포장의 영예도 함께 안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과학인재 육성이 필요한 시기, 학교 교육의 변화 중 하나로 융합인재교육(이하 STEAM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때맞춰 2011년 ‘제2차 과학기술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그 첫 단계로 초·중등 학생들의 수학·과학교육 강화라는 과제가 포함됐다. 기존 STEM 교육의 골격 위에 인문·예술(Arts) 요소가 추가된 ‘한국형 STEAM 교육’이 시작된 것이다.

울산 삼일여고 민재식 과학교사는 2011년부터 이 STEAM 교육의 틀을 새로 만드는 데 참여했다. STEAM 교육 가이드북을 집필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STEAM 교육 기초 및 심화 연수 강사로도 활동했다. 이러한 공로로 융합인재교육 우수교원 표창(2012년)에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교육부 주최 ‘전국 STEAM 우수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대상의 영예까지 안았다.

STEAM 교육은 과학(S), 기술(T), 공학(E), 인문·예술분야(A), 수학(M) 등 교과외 이론과 개념뿐만 아니라 ‘실생활’과의 연계성, 자연스런 융합을 특히 강조한다. 학생 스스로 창의적으로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수업과 활동에 반영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미래인재는 단순히 지식의 앞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융합하여 활용하는 문제해결력이 더 높이 평가되고, 또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 그의 배움의 여정에는 끝이 없다

“8년 전 STEAM 교육의 학교현장 적용사례 자문을 요청받으면서 한국형 STEAM 교육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죠. 공부해 보니 STEAM 교육이 창의적인 학생을 양성하는 데 적합한, 평소 제가 꿈꾸어 오던 교육 방식이었죠. 그때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몰입하게 됐습니다.”

민 교사에게는 그 이후 또 다른 연구과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 듯 이어지기 시작했다. 학생참여형 교실수업 개선, 이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과정중심평가 연구도 자연스럽게 연계됐다. 취재 도중 이 대목에서 민 교사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활용했던 활동지, 또 그간 저술활동에 참여했던 교재들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수법, 학생평가방법 등을 담은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자료>, <과학수업사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발간한 <STEAM 가이드북> 등등. 그동안 민 교사가 집필한 저서만도 수십 종에 이른다. 인터뷰하기 전, 취재진과 잠깐 인사를 나누면서 김철중 교장은 “민 선생님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늘 무언가를 새롭게 모색하고, 연구하는 분”이라고 기자에게 귀띔했었다.

민 교사는 지난 학기까지 교육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곧 쓸 예정이라는 학위논문 주제 또한 ‘학생참여수업, STEAM, 과정중심평가’에서 정하기로 했다. 전공 교과목과 관련한 이학박사 학위는 이미 10년 전에 마친 바 있다. 이번 교육학 학위가 끝난 후에는 다시 문학박사 학위에도 도전할 예정이란다.

“요즘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평가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이슈도 뜨거워지고 있고요. 제가 교육학을 계속 공부하게 된 연유이기도 합니다. 종종 교사들의 평가결과를 놓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이의제기도 있곤 해요. 모든 구성에서부터 평가 등 교사의 역할에서 시행착오가 따를 수도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하고요.”

민 교사는 학생평가의 오류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매 차시마다 평가 횟수를 늘리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이제까지 민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평가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민 교사는 “아직까지 교사를 평가전문가로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교육풍토에 대해 조금은 아쉬움이 있다.”라고도 전했다.

### 동남아 학교에도 STEAM 교육 전파

민 교사는 요즘 과학기술 분야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한 드론의 정식 면허에도 도전 중이다. 이미 항공이론 등 학과시험은 합격한 터. 9월부터 비행 등 본격적인 실기시험에 도전하게 된다. 이곳 삼일여고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민 교사는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최근 신종 레저스 포츠로 자리 잡고 있는 드론축구에 대해 한창 ‘열공 중’이다.

삼일여고 학생들에겐 매달 한 차례, 과학기술 멘토와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된다. 10년 전, 학생들의 과학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민 교사가 울산교육청에 직접 제

안하면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64회에 이르는 동안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학자와 교수 등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특히 <하리하리의 생물학 카페> 저자인 이은희 작가와의 만남은 민 교사와 삼일여고 학생들에게 무척 즐거웠던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다고 한다.

요즘도 매주 주말이면 민 교사는 울산지역 과학교사들과 함께 교육봉사에 참여한다. 민 교사는 주로 문화의집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맡는다. 그동안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사실들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고, 실험해 보면서 강의 만족도는 어느 강좌보다도 높다고 민 교사는 귀띔했다.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고, 교재를 집필하고, 연구를 하는 일이 저로서는 유일한 취미생활이자 낙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저는 잘하지 못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음주가 그러하고, 운동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요. 덕분에 학교에서 일정을 마친 저녁시간에도 시간단위로 쪼개가면서 제게 유용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죠.”

쉬지 않고 늘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 모색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묻자 들려준 답변이다. 민 교사의 STEAM 교육 전파는 방학기간 중에는 해외 교육봉사로도 이어진다. 10년 전, 베트남에서 시작된 교육봉사는 태국과 캄보디아 지역으로 확장됐다. 주로 교사 대상이던 캄보디아 연수는 이번에 처음 학생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 울산과학축전에는 이들 캄보디아 학생들을 초청,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되기도 했다. 민 교사는 현재 울산청소년과학탐구연구회의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울산과학기술제전을 13년째 주관해 오고 있다.

“베트남은 현재 STEM의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처럼 좀 더 진화된 STEAM 교육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요. 캄보디아에는 STEAM을 알리는 임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곳의 아이들이 궁금하기도 해서 프로그램에 신청하게 됐죠. 직접 만나 보니 여전히 순수함은 물론, 선생님에 대한 존경하는 눈빛과 마음을 오롯이 느낄 수 있었죠.”

### ‘유능한 교사’에서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올해로 교직 20년째를 맞은 민 교사는 지난 5월, 제8회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에서 중등부문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민 교사는 “이 상을 받기 전엔 ‘유능한 교사’가 꿈이었



다면, 수상 이후에는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꿈이 바뀌는 것 같다.”라며 웃었다. 마흔 살을 넘기면서부터 졸업생 제자들의 결혼식 주례를 서기 시작했다는 민 교사. 학생들이 학교를 떠난 뒤에도 꾸준히 소식을 전해주는 애제자가 많아졌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을 품고 있단다.

“과학교사로서 앞으로 꼭 실현되었으면 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정년퇴임 후에도 소일거리 겸 봉사활동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과학관도 그 좋은 예 중 하나입니다. 다만 다른 과학관들처럼 오전 9시에 개관하고, 오후 5시에 폐관하는 운영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이 가능해지는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문을 여는 공간이면 어떨까 합니다.”

민 교사가 꿈꾸는 프로젝트인 울산과학관이 건립되면, 울산지역 과학문화 창달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그는 전했다. 평소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해진다”고 굳게 믿는다는 민제식 교사. <논어(論語)>의 용야편(雍也篇)에서 전해주는 이 말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에게도 자주 들려주곤 한단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



1 존경받는 선생님이 꿈이라는 민제식 교사와 담임을 맡고 있는 2학년 1반 애제자들

23 최근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한 드론에 대해 관심이 많은 민 교사는 비행 실기시험을 도전하고 있으며,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드론축구에 대해서도 열공 중이다.

# 서울교대부설초교 장현정 교사의 메이커교육 “나도 이전 메이커, 상상하면 이루어져요!”

창의 융합형 인재,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 중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분야가 바로 메이커교육이다. 학습자가 직접 ‘메이커’가 되어 창작물을 만들고, 이를 다른 메이커들과 공유하면서 자신의 발전을 도모해 나아가게 된다. 또 메이킹 창작활동의 즐거움은 아이들에게 창의적 사고역량을 향상시키는 핵심요소가 된다.



서울교대부설초 장현정 교사와 3학년 아이들



지난 8월 27일 오후, 서울교대부설초등학교(교장 이계수)의 메이커 스페이스 ‘뚝딱누리’. 3학년 3반 학생들의 메이커 교육 5~6교시 수업이 있는 날이다.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꿈꾸는 상상처럼, ‘뉴드래곤’이 하늘을 날 준비를 하고, 또 ‘에이스호’로 명명된 페트병 보트는 언제라도 바다로 나갈 태세를 갖추는 듯하다. 이날 수업의 학습목표는 ‘팀 자유주제 만들기’. 모두 6개 모둠으로 구성된 스물다섯 명의 아이들이 친구들과 협력하고, 배려하면서 즐겁게 창작활동을 하는 수업시간이다.

재활용 빨대를 예쁘게 오려붙인 필통, 동물들이 한가로이 노니는 물놀이파크, 커다란 몸집을 자랑하는 수동차 등등. 이번 차시 메이킹 활동에서 만들고 싶은 창작물들은 바로 직전 차시에 모둠원들이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 선정한 작품들이다.

이 메이커교육 수업을 진행하는 장현정 교사는 “지난해 수업의 경우 각 모둠에 동일한 주제를 제시했더니 학생들이 창의적 역량을 발휘하기보다는 ‘선생님, 우린 뭐해요?’, ‘이건 어떻게 해요?’ 등등 수동적인 학습태도를 갖는 시행착오도 있었다.”라고 소개했다. 이에 올해는 모둠원들끼리 창작의 주제를 정하고, 만들기에 필요한 다양한 재료들은 스스로 탐색하면서, 그 특성을 익히도록 하는 자유주제 수업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 “마음껏 상상할 수 있어서 좋아요!”

5교시를 알리는 본격적인 창작활동 시간. ‘뉴드래곤’ 제작의 아이디어를 낸 송시후 학생팀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용’을 만들기로 했다. 용의 얼굴 부분은

송시후·이나경 학생이 만들고, 몸통 부분은 김대현·최현준 학생이 맡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대현 학생은 “아주 예쁜 몸통을 가진 용을 만들자”면서 현준 학생과 함께 열심히 은박지를 매만졌다.

페트병 보트 ‘에이스호’ 제작에 나선 최서영 학생팀도 모둠원들끼리 손발이 척척 맞았다. 서영 학생은 먼저 선체 만들기에 돌입했고, 김성준 학생은 선체 이름 ‘에이스호’의 문자열을 만드느라 친구들과 한창 의견을 조율 중이었다.

허예원·최운아·김장현·김규원 학생이 속한 우정팀에서는 필통 만들기에 도전했다. 예원 학생은 글루건으로 빨대를 붙이고, 가위로 재단하는 등 화려한 색상의 필통을 창작했다. 예원 학생은 “이 필통 만들기의 콘셉트는 바로 재료의 재활용”이라면서 “메이커 수업에 참가해 보니 내가 만들고 싶은 작품을 마음먹은 대로 상상할 수 있어 좋다.”라며 활짝 웃어보였다.

임수현 학생 모둠은 이주현·이하나·홍우진 학생이 서로 도와가며 학용품 세트를 만들었다. 수동차 제작에 나선 이동윤 학생 모둠에서도 박스를 자르고, 또 골판지를 오리고 붙이면서 대형차의 외형이 점차 그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했다.

노서연 학생 모둠은 물놀이파크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이는 연지안 팀장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 파크 안에는 놀이동산도 만들고, 무지개상점도 들어서는 등 창작활동 계획서에는 다른 모둠보다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활동들이 빼곡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지안 학생은 “파크 안에 사파리도 만들 계획”을 세웠고, 준우 학생은 “파크 한켠에 로봇경기장”도 세우기로 했다. 이처럼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공원을 설계하다 보니 필요한 재료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었을 터. 3D 프린터, 컴퓨터, 글루건, 모터, 분무기, 로봇, 철사 등이 재료란을 빼곡하게 채웠다. 하지만 이곳 뚝딱누리에는 메이킹 활동에 필요한 공구와 채색용구, 접착제류, 재활용품 등은 갖 재료들이 구비돼 있어 물놀이파크팀은 재료 걱정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됐다.



### 창작과 공유의 공간, '뚝딱누리'

이번 주제 수업의 최종 작품은 다음 차시 수업에서 완성된다. 6교시 종료를 알리면서 장 교사는 각 모듈별로 제작한 (덜 완성된) 창작품을 들어 올려 옆 모듈의 친구들에게 뽐내는 시간을 마련했다. 2교시 동안 자르고, 붙이느라 떠들썩했던 뚝딱누리 교실 안이 아이들의 환호로 다시 가득 채워지는 순간이다.

다음 차시, 창작물이 완성되면 학생들은 온·오프라인에서 이를 친구들과 공유하는 과정을 거친다. 메이커교육의 핵심인 메이커들과의 결과물 공유가 이뤄지는 것이다. 장 교사는 “메이커수업은 이와 같은 공유를 통해 창작물의 미비한 점이 개선되기도 하고, 또 창작물이 바뀌기도 한다.”라고 소개했다. 또한 평소 쉬는 시간, 혹은 점심시간에 재료와 도구

를 사용할 수 있는 교실환경을 구축해 놓기도 한다. 평상시에도 메이킹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면 메이커교육의 효율성과 만족도는 그만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교대부설초교는 현재 이곳 뚝딱누리 메이커 스페이스 외에 각 교실에서도 메이킹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 놓고 있다.

이곳 메이커 스페이스 '뚝딱누리'는 서초구의 특별 지원으로 마련된 공간. 지난 여름방학 기간에는 서초구 거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메이커교육 강좌도 이곳에서 진행된 바 있다.

### 메이커교육, 미래역량의 방향성을 제시하다

장현정 교사는 현재 창의적 체험활동 외에 일반교과와 연계한 메이커교육을 한 학기 동안 25~30시간 안팎으로 운

영하고 있다. 일례로 과학교과의 '물질의 성질' 단원의 경우, 여러 가지 물질을 선택하여 다양한 물체를 설계한 뒤, 장단점을 토의할 수 있게 한다. 이때, 메이커 교육을 병행하면서 '물질의 성질을 이용해 다양한 제품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메이커 수업이 전개된다.

올해 메이커교육 연구 2년차인 장현정 교사는 “개인적으로는 유능한 ‘메이커’가 돼서 세계메이커대회에 한번쯤 참가해 보고 싶은 꿈”도 갖게 되었다. 장 교사는 이번 수업을 마치면서 “메이커교육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프로젝트 학습, 거꾸로 학습처럼 학생·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한 이때 미래교육의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②

### 'TMSI 수업모형' 4단계

- Tinkering** 자유롭게 도구를 탐색·실험 / 개념화 단계 무엇을 만들지에 대한 동기/대략의 목표 설정  
 주어진 재료와 도구를 탐색하여 모듈별 활동 주제를 정하고, 모듈별 토의를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창작계획서를 작성한다.
- Making** 목표의 구체화 / 만들기 활동 / 기존 지식과 재료에 대한 이해 융합 / 스스로 문제를 해결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고, 협력하여 창작활동을 할 수 있다. 기존의 지식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한다.
- Sharing** 창작과정 공유 / 다른 사람의 의견을 공유 / 새로운 아이디어 생성  
 다양한 관점에서 서로의 창작 결과물을 공유하고 의견을 이야기한다.
- Improving** 타인의 아이디어 도입 및 개선 / 새로운 창작물 고안  
 의견의 공유를 통해 개선할 점을 바꾸어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성한다.
 

※ 이번 차시 수업이 두 번째 단계인 Making에 해당한다.

16 서울교대부설초 메이커 스페이스 '뚝딱누리'  
 2357 6개 모듈로 구성된 25명의 아이들이 친구들과 협력하고 배려하면서 즐겁게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4 장현정 교사가 한 학생의 공구작업을 도와주고 있다.



### 메이커교육 지도 시 유의점

- 01 창작과정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아이디어가 더욱 풍부해지고, 정교해진다 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02 이번 차시처럼 메이킹 활동 시에는 칼로 자르기, 톱질하기 등 위험성에 노출되는 도구를 사용하게 되므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 03 창작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학년의 경우 작품의 완성도를 기대하기 보다는 쉽고 재미있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 아이들의 창의성이 더욱 배가되도록 한다.
- 04 모듈 구성원들이 창작물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창작활동 후에는 반드시 작품 공유의 발표 시간을 마련한다.
- 05 발표시간 친구들의 조언이나 개선점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면 이를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글로벌지식협력단지 경제발전 체험교육 딱딱한 경제발전사, 쉽고 재미있게 배워볼까?



123  
전시와 연계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 활동 시간 <성신경제체험반> 학생들은  
롤플레이를 통해 모의 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광복 이후 반세기 남짓 지난 현재, 우리나라는 '가장 못사는 나라' 중 하나에서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2위(2018년 기준)에 이르는 경제선진국이 됐다. 글로벌지식협력단지의 경제발전 체험교육은 이처럼 눈부신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 경제의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온라인 사전·사후학습을 포함해 전시관 관람, 조별 모둠활동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확실히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3일, 성신여자고등학교(교장 박현성)의 경제동아리 <성신경제체험반> 22명의 학생들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사 체험교육'을 함께 했다.

### 전시관에서 시대별 경제발전 과정 한눈에

교육은 먼저 우리나라 경제발전사를 담은 영상을 시청한 후 전시관을 둘러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전시관은 폐허 속에서 경제성장의 열망을 꽃피운 광복 이후부터 50년대, 고속성장의 기반을 이룬 60~70년대, 불균형을 조절하고 경제발전을 지속해온 80~90년대, 97년 이후 현재까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경제 등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각 시기별 경제 상황과 특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이 다소 생소한 학생들도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보였다. 전문 연구원의 설명과 함께 전시관을 한 바퀴 둘러본 후, 학생들은 각자 나눠 받은 태블릿 PC를 통해 초성 맞추기, 빈칸 채우기 등 전시 관련 퀴즈를 푸는 것으로 학습 효과를 더했다. 홍지우(1학년) 학생은 "우리나라 경제발전 역사를 한눈에 보게 됐는데, 이렇게 빠르게 성장해온 것을 알게 되니 왠지 감동적이고 몽클했다."라고 말했다.



### 전시 연계 프로젝트 학습으로 흥미 높이기

전시관을 나선 학생들은 교육동으로 향했다. 이곳에서는 전시와 연계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이뤄진다. 인포그래픽 신문 만들기, 토론학습, 롤플레이 등 다양한 체험형 교육활동 중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을 사전에 자유롭게 선택한 후 진행하게 된다. <성신경제체험반> 학생들은 롤플레이를 통해 재정정책의 수립과정을 체험하는 활동을 택했다.

"오늘의 주요 의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입니다. 각 부처에서 제시한 정책 가운데 토론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배분하겠습니다." 학생들은 각각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를 대변해 모의 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부처별 정책을 선정하고 실제 장관회의처럼 정책브리핑과 질의응답, 의장단 논의를 통한 정책 투표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베이비시터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요즘 베이비시터의 아동학대 뉴스가 종종 나오는데, 범죄 예방책은 있습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까다롭게 면접을 진행하고, 베이비시터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둠별로 준비한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이 오가며 실제 회의 못지않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전체 투표 결과 여성가족부 팀의 양육비 지원제도 개선 정책이 1순위로 결정됐다. 상품권형식의 바우처나 기저귀, 분유 등 실물 형태로 양육비를 지원해 육아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책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손을 들었다.

### 현장교육에 온라인 학습까지...만족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김은서(1학년) 학생은 "이번 롤플레이를 통해 정책들이 많은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것을 배웠고, 특히 사회를 맡게 돼서 더욱 기억에 남는다."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 박서진(2학년) 학생은 "고용노동부의 정책이 가장 적은 표를 받았는데, 실제



4  
전문 연구원의 설명과 함께 전시관을 둘러본 학생들은  
전시 관련 퀴즈를 푸는 것으로 학습 효과를 더했다.

장관회의였으면 정말 큰일 날뻔했다."라고 웃음 지었다. 이어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 처음 방문했는데 전시관이 잘 구성돼 있어서 인상적이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체험교육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글로벌지식협력단지는 이처럼 전시관과 함께 여러 활동을 결합해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경제교육이란 것이 강점이다. 현장교육과 더불어 온라인 사전·사후학습 자료가 제공돼 심화학습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돋보인다. <성신경제체험반> 정원석 지도교사는 "지난해 처음 방문했었는데, 전시관 구성과 교육프로그램까지 만족도가 높아 올해도 이어서 참여하게 됐다."라며 "경제라는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주제를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견학 활동으로 추천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②

#### 글로벌지식협력단지 경제발전 체험교육

- 운영일 : 월~금요일, 14:00~17:00
- 대상 : 전국 중·고등학생
- 교육인원 : 1일 1팀, 팀당 15~30명 (선착순 접수)
- 비용 : 무료
- 문의 : gkedc@kdi.re.kr / 02-6312-4036

글\_ 박선미 명예기자

### 나는 ‘타조 증후군’일까?



“타조 증후군(Ostrich Syndrome)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타조는 겁이 나면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는 습성을 가졌다고 한다. 눈에 위험한 상황이 보이지 않으면 실제로 위험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처럼 타조 증후군이란 위기가 닥쳤을 때 문제를 회피하려는 심리로, 현실에 눈을 가리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상황을 피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개인의 미디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미디어 환경 속에 수없이 생성되고 있다. 매일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찾아 내기가 쉽지 않다. 그중에서 자신이 보고 싶은 정보, 듣고 싶은

정보만 수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 가짜뉴스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이야기도 나온다. 한편으로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의견도 있다. 필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선한 미디어를 부탁해’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무수히 넘쳐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정보와 뉴스를 올바르게 바라보기 위한 수업이다. 가치관이 확립되는 청소년기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 제작과 미디어 바로 읽기 등의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대상을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세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고 자신이 보고 싶은 정보, 듣고 싶은 정보만 들으며 상황을 회피하려는 타조 증후군! 나는 타조 증후군인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현실을 회피하는 것은 아닌가? 미디어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스스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시기이다.

글\_ 이대송 명예기자

### 특수교사, 그림책을 만나다



지난 8월 1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전국 특수교사 60명을 대상으로 ‘좋아서 하는 그림책 연구회’ 김여진 교사의 세움특강이 있었다. 세움특강이란 특수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 특수교사 연구회인 SETUP(Special Education Teacher Union Project)에서 매월 진행하는 특강으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었다.

이번 특강에서는 ‘그림책의 이해와 주제별 그림책 맛보기’라는 주제로 연령별 그림책의 특징, 그림책 구성 이해하기, 주제별 그림책 맛보기 등의 내용으로 강의식 연수가 아닌 활동 참여형 연수로 진행되었다. 특강에 참여한 한 선생님은 “그림책이란 유아들만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장애학생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세움특강은 앞으로도 연극 수업, 세계시민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매달 진행될 예정이다.

글\_ 유연상 명예기자

### 세종시교육청에 초등학생들이 떴다!



세종시교육청에 초등학생들이 모였다. 세종시교육청은 초등 사회 교과와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청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내용은 5가지로 △OX퀴즈 △부서 방문하기(유·초등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등) △마스코트 인형 탈 써보기 △응원 메시지 남기기 △옥상 정원 둘러보기로 이루어진다. OX퀴즈는 교육청 홍보영상을 시청 후 3개의 질문에 직접 몸으로 답을 표현해보았다. 이를 통해 세종시교육청의 위치, 역사, 하는 일에 대해 간략히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모듬별 부서 방문으로 각 과의 담당 장학사가 아이들에

게 부서에서 하는 일을 알려주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져 학생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해결해주었다. 이어서 세종시교육청 마스코트인 세종이와 안전이 인형 탈을 쓰고 사진도 찍고 추억을 만들었다. 그리고 교육청에 바라는 점이나 응원 문구를 적어서 각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옥상 정원에 올라가 아름다운 금강을 한눈에 감상하는 시간까지 가졌다. 체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세종시교육청에 직접 와서 체험도 하고 눈으로 살펴보니 신기했다.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교육청 견학을 통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을 하니 기억에 더 오래 남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세종시교육청 견학 연계 프로그램이 학생에게 많은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고장의 공공기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교사로서도 뿌듯한 생각이 들었다.

글\_ 엄장수 명예기자

### ‘희망씨’가 쏘아 올린 작은 공

경기도 시흥시 관내 도서관은 모두 29개로, 11개 도서관과 18개 작은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중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씨사람들’이 위탁 관리하며 지역 도서관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나가고 있는 월곶도서관(관장 김춘석)을 찾았다.

월곶도서관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앞서 말한 ‘희망씨사람들’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당초 지역 봉사자들이 도서관 운영을 도왔지만,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책임 있는 운영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희망씨사람들’ 조합원들이 모여 7명의 상시 근무자로 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게 되었고,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빠르게 수용하고 그 해법을 찾아나서기 시작했다. 적은 예산 속에서 부족한 도서는 지난 4월 지역 KSP와 MOU를 체결하고 462권의 도서(500만 원 상당)를 기증받았다.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



하여 제1회 달빛 천문 캠프’도 선보였다. 이 캠프에서는 ‘플라네타륨(planetarium)’ 모형을 함께 만들고 천체의 원리와 별자리를 보면서 참가자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또한, 지난 8월 23일에는 도서관에서 영화 ‘인터스텔라’ 상영과 함께 지능배 작가와의 질의응답 및 천체에 대한 설명을 곁들이는 시간도 마련했다. ‘희망씨사람들’은 어린이들에게, 청소년에게,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돌려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현재 도서관의 고유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평생교육, 체험학습, 문화공유, 지역 네트워크와의 협업 등 다양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글\_ 박경은 명예기자

### 만져봐도 돼요?

찾아오는 동물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조례초 병설유치원. 매월 한 번씩 열리는 애니멀스쿨에서는 여러 동물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동물과 교감하면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동물들의 특징을 알아간다. 직접 만져보고 관찰하면서 자연스럽게 교감하게 된다. 물론 안전한 체험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글\_ 강병희 명예기자

### 함께 만들어가는 상상학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공간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상상(相想)학교' 대토론회를 지난 8월 20~21일 경기도 남부와 북부에서 열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교사, 학부모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대토론회를 통해 학교 공간

글\_ 신정혜 명예기자

### 2019 제1회 아동정책 제안대회 개최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관 '2019 제1회 아동정책 제안대회'가 지난 8월 30일 인천 서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관내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아동 스스로 아동정책 제안을 만들어 보고 각 제안들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과 대화, 투표 및 시상의 순서로 진행됐다. 아동들이 스스로의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협력해 해결해 보고자 하는 체험교육적인 측면이 돋보였다. 아동의 권리와 행복을 위해 아동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행사로서의 좋은 발판을 보여주었다.

의 불편한 점에서부터 학교 내부 공간이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는지, 외부 공간은 어떻게 바뀌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생각들을 나눴다. 특히 최은준 학생(발곡고)은 학교 남학생 화장실의 소변기가 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불편함을 호소하며 학교의 공간 감수성에 대해 청중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학교" "방학이나 주말에 캠핑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딱딱한 의자 대신 폭신한 소파 같은 의자가 있는 학교" 등 상상만으로도 웃음 짓게 되는 학교의 모습이다. 현실 속 학교가 행복한 공간이 되길 바라는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생각들을 당차게 발표했다.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의 학교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미래 정책에 반영되길 희망한다.

글\_ 박성호 명예기자

### 즐거운 수업을 위한 선생님들의 행복한 배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게임의 활용 가치 발굴과 확장, '모두의 게임'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게임리터러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게임리터러시 1차 혼합 연수가 지난 8월 31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실시됐다. 게임리터러시 교육은 게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문화 맥락

을 이해하고 게임을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날 연수에서는 사전에 게임인식 및 문화, 게임화(Gamification)를 활용한 수업설계, 게임 과몰입 예방지도 등의 온라인 연수를 사전에 수강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 200명이 교실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보드게임 수업사례, 게임 활용 코딩 교육 등의 7개의 주제별 선택 연수에 참여하였다.

교실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보드게임 수업사례 과정에서는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드게임을 체험하고, 이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연수에 참여한 대구의 한 교사는 "학생들이 재미있어하는 보드게임의 원리를 수업에 적용하여 활용한다면 보다 즐겁게 놀이처럼 학습할 수 있음을 체험을 통해 느끼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라는 소감을 전했다.

글\_ 이석현 명예기자

### 경기꿈의학교 '함께하는 심리여행', 자아발견으로 꿈 이뤄가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경기꿈의학교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경기꿈의학교는 마을공동체의 인적·물적 자원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학생중심교육철학에서 시작되었다. 경기도 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기획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꿈 실현을 위해 학교밖에서 스스로 운영하는 교육활동이 되었다.

의정부시에서도 경기꿈의학교가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함께하는 심리여행'은 그중 하나로서 5월12일부터 8월 17일까지 의정부시 소재 지피지기 심리상담센터에서 진행되었다. '함께하는 심리여행'은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상담심리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깨워 구체적인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검사와 신체상 본뜨기, 종이컵 쌓기, 얼굴

대고 그리기 등 집단프로그램과 1대1 상담 등으로 진행되었다. 한 고등학생은 다양한 심리치료방법을 접해볼 수 있어 유익했고, 선생님들의 열정과 자기감정에 솔직한 학생들 덕분에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경기꿈의학교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⑦



※ 행복한 교육 웹진(www.happyedu.moe.go.kr)에서 보다 다양한 기사를 확인하세요.

#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을 지원하는 '교원정책과'

교육부는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하여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포용과 혁신, 신뢰를 위한 교육정책은 단위학교와 교실현장에서 시작되고 실천되어야 가능한 일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교육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생·학부모와 직접 부딪히며 소통하고 있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원정책과는 헌신과 열정으로 미래 핵심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원정책과의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원수급 관리

학생들이 선생님의 도움을 안정적으로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 합의로 2018년 4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수급계획은 관련 부처(행안부, 기재부 등)가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합의로 마련한 최초의 수급계획으로 국가 차원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원수급 관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2019학년도 초·중등 신규교사 선발 시, 수급계획에 따른 채용 인원에 맞추어 선발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원 수급관리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학생, 미래에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예측 가능한 신규채

용 규모를 제시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미래의 교육은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의 인재로 키우는 창의·융합 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기존의 교육과는 질적으로 다른 교육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육의 질 제고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교원수급 기준 마련을 위하여 지속해서 고민해 나갈 것이다.

### 「18. 4월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주요내용」

- (초등) ①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2년 OECD 국가 평균수준(15.2명)에 도달하도록 하고, ② '19년 4,040명(최대)에서 '30년에 3,500명(최대)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 안정화
  - (중등) ① '18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2.1명으로 OECD 국가 평균(13.1명)을 달성하고, 고교학점제, 중학생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OECD 평균보다 개선된 교사 1인당 학생 수(11명 대) 유지 ② '19년부터 4,460명(최대)에서 '30년에 3,000명(최대)으로 신규채용 규모 안정화
- ※ 교육청 수급여건, 매년 연동계획 수립에 따라 신규 채용규모는 일부 조정 가능

## 2.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 및 보호

### 교원 복무 및 징계제도 개선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교원 복무 및 징계 제도 개선을 통해 교원의 책무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2019년 7월, 교원 개인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교류를 위해 본연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을 장려하는 등 '교원 유튜브 복무지침'을 마련하였다. 유튜브 복무지침은 거꾸로 수업 등 교실에서

교원정책과는 선생님의 어깨 위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유튜브 영상을 활용한 수업이 증가하고, 교원과 학생의 유튜브 제작, 시청 등에 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교원정책과에서 교원 유튜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제적으로 복무지침을 수립한 것이다.

또한, 교원으로서의 역할과 가정 내에서 역할의 조화를 위해 육아휴직, 육아시간 등 모성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자녀 입대, 특별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경조사 등 연가 사유를 확대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성비위, 성적 평가 비위 등 일각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교육 현장 비위에 대해 국민의 엄중한 비판에 맞춰 교원에게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 매우 엄격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15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행위로 처벌받으면 영구적으로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2018년, 경미한 성비위 행위일지라도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계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2019년 4월, 그간 사학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진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위기 교원을 지원하고, 자긍심과 의욕이 저하된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7년 전체 시·도교육청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는 피해교원에게 정기적인 상담과 멘토링을 제공하여 원만한 현장 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원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학교 구성원 간 존중과 공감문화 조성 등 침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 「교원치유지원센터 개요」

- (목적 및 역할)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연수 - 피해교원 지원 (심리상담·심리치료·법률자문) - 학교 복귀 및 사후지원 등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피해교원 지원	복귀 및 사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연수 실시</li> <li>• 사례동행 프로그램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치료 지원</li> <li>• 심리상담 지원</li> <li>• 법률자문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복귀 교원 대상 지속 모니터링·적용 지원</li> </ul>

- (법적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지위법 개정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더욱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을 개정('19.4.16)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이 침해된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와 치유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현재 개정안의 시행예정일('19.10.17)에 맞추어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교원지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중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안) 주요내용]

- (피해교원 보호) 교육활동이 침해된 교원에게 제공할 심리상담, 조연, 치료, 요양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규정 신설
  - (특별휴가 부여)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회복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 제공
  - (조치비용 부담) 피해 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청 비용 부담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 (침해학생 조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이 학급교체, 전학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 조치 유형 :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교육활동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할청의 교육활동 침해현황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장의 교직원·학생·보호자 대상 예방교육 의무화

교원 행정업무 경감

교원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교원 행정업무 경감 매뉴얼, 교무행정팀 구성 및 운영 매뉴얼을 교육현장에 배포하였고, 행정업무 경감 우수사례와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유하여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기간제교사 처우 개선

기간제교원의 불합리한 운영 관행을 해소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기간제교원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기간제교원의 교권을 보호하고 기간제교원이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교육공무원법」을 2018년 12월에 부분 개정하였으며, 기간제교원, 교육부, 교육청 및 노동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간제교원 운영개선 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통·

협력하면서 채용 계약 및 복무, 성과상여금, 복지 및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3. 스승 존경 문화 조성

교원의 사기진작 및 스승존경 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스승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직발전에 헌신한 교원을 선발하여 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스승의 날 포상’은 우수 교원을 발굴하여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며 ’19년에도 정부포상(227명)과 장관표창(2,740명)을 수여하였으며, 한국교직원 공제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스승상’을 마련하여 유·초·중등·특수·대학 분야별로 우수 교원을 발굴하여 정부포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 하고 있으며 ’19년 5월에 10명을 수여하였다.

또한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올해의 스승상’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7명을 선발하여 장관표창과 상금 2천만 원을 ’19년 말에 수여할 예정이다. 스승의 날 포상은 각 시·도별로 우수 교원을 추천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한민국 스승상과 올해의 스승상은 기관 과 국민추천 방식으로 추천을 받아 1차 공적심사와 2차 현지실사 등을 통해 묵묵히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거나,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의 공적이 있는 선생님들을 엄정히 심사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38회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19.5.15) 제8회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19.5.31)

4. 교원조직 풍토 개선

교장공모제 확대

교장공모제를 통하여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를 개선하여 학교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학교장은 교감에서 승진하여 임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교장공모제를 통하여 임용되기도 한다. 교장공모제는 교육자치 강화와 단위학교의 자율 운영을 지원하고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 개선 및 교장임용 방식 다양화를 위해 ’07년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표] 지정 학교 수(19.3.1. 기준)

학교급	전체 학교 수 (18.4.1 기준)	초빙형	내부형	자격증 미소지	개방형	자격증 미소지	합계
초	5,990	741	333	52	0	0	1,074 (17.9%)
중	2,577	185	115	41	4	3	304 (11.8%)
고	1,412	69	156	10	64	36	289 (20.5%)
계	9,979	995 (10.0%)	604 (6.1%)	103 (1.0%)	68 (4.1%)	39 (0.4%)	1,667 (16.7%)

수석교사제 운영

‘잘 가르치는 교사’의 가치가 존중되는 교직 풍토 촉진과 동시에 관료화된 교원조직 풍토를 개선하고자 교수경로와 행정관리 경로 이원화 체계로 교원자격체계를 개편하여 ’12년부터 수석교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수석교사는 시·도별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발 후 자격연수를 거쳐 임용하고, 매년 업적평가와 연수실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4년마다 재심사를 통해 재임용하여 ’19년 현재 1,409명이 배치되어 있다.

수석교사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수업시수 1/2을 경감하고 연구활동비(월 40만 원)를 지원하고 담임배정을 면제하는 등 우대하고 있다. 수석교사는 동료 교사의 수업 및 생활지도 컨설팅, 신규 및 저경력 교사 교수·학습 지원, 자료 개발 및 연구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원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묵묵히 스승의 길을 걸어가며 아이들과 함께 하는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우리 학생들은 가르침을 디딤돌 삼아 건강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학교라는 울타리 너머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담대하게 자신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 디지털 시대로 이행이 가속화됨에 따라 많은 이들이 미래를 걱정한다. 그러나 우리 교원정책과는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우리나라의 미래는 더욱 밝을 거라고 확신한다.

인성이 실력보다 앞서고, 협력이 경쟁보다 우선할 수밖에 없는 미래 시대에 선생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전달하는 따뜻한 마음은 차가운 기계가 대신할 수 없고, 선생님이 학생에게 보여주는 배려와 헌신은 컴퓨터와 소통하면서 느낄 수 없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전해주는 도전적인 정신과 태도는 인공지능을 보며 기를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사회가 선생님께 큰 기대를 걸고 이런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비난은 매섭게 쏟아내지만 선생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책임을 함께 나누자는 애정 어린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교원정책과는 선생님의 어깨 위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㉔

# 제9회 e-ICON 세계대회 열려 국내외 글로벌 팀 꾸려 ‘협력’ 배운다

12개국 84명의 이-러닝 분야 우수 고교생들 총집합  
6박7일간 합숙하며 창의력 넘치는 모바일 앱 개발  
미래 필요 역량, ‘글로벌 협력’ 경험하는 배움의 장



“아랍어를 배우고 싶은데, 학습 자료도 부족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비주류 국가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현지인의 생생한 발음을 넣으면 배우기 쉽겠지?”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권소희, 양나영 학생과 말레이시아 Nurul humairah Binti Ahmad Fitri, Norhijuddin 학생이 비주류 국가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이아이콘(e-ICON) 세계대회를 계기로 알게 된 친구들이다. APEC국제교육협력원의 매칭을 통해 서로의 연락처를 전달받았다는 학생들은 자국에서 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누며 비주류 국가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로 협의하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모았다. 그리고 지난 8월 18~24일 6박7일간 부산에서 열린 제9회 e-ICON 세계대회에서 비주류 국가의 언어를 3개국 언어로 익힐 수 있는 언어학습 어플리케이션을 실현시켰다.

### 고교생이 펼치는 ‘모바일 앱’ 개발 대회

교육부에서 개최하고 APEC국제교육협력원에서 주관한 제9회 e-ICON 세계대회가 부산 한화리조트에서 열렸다. e-ICON 세계대회는 국내·외 고등학생들이 팀을 이뤄 교육용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대회로, 올해에는 이-러닝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가진 해외 12개국 고교생 42명과 교사 19명, 우리나라 고교생 42명과 교사 21명이 참가하였다.

e-ICON 세계대회는 국내 유일의 다국적 팀 소프트웨어 대회로 국내와 해외 학생이 각각 2명씩 1개 팀을 구성하고 각 팀에 국내 및 해외에서 온 지도교사가 2명씩 짝을 이뤄 진행하였다. 우리나라 참가자는 온라인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하였으며 일반계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등 다양한 유형의 고교가 참여하였다. 해외 참가자는 각국 정부의 공식 추천을 통해 선발하고 개발도상국의 미래교육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주로 개발도상국 학생을 선발한다. 올해에는 남아공(2명), 대만(6), 말레이시아(6), 몽골(2), 미국(4), 베트남(2), 우즈베키스탄(2), 인도네시아(2), 캄보디아(4), 태국(6), 필리핀(4), 호주(2) 등 12개국에서 참여하였다.

12456  
제9회 e-ICON 세계대회에 참석한 12개국의 고교생들이 지도교사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주제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3 e-ICON 세계대회 폐막식

e-ICON 세계대회는 6박7일간 진행되지만 본 대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온라인으로 콘텐츠 개발 연수를 받고, 팀별 사전활동을 통해 기획안을 작성하는 등의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다. 다국적 팀으로 묶이기에 서로 언어가 다른 학생들은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글로벌 환경에서 해외의 친구들과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고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성장을 경험하였다.

미림여자정보과학고 권소희·양나영 학생은 “대회를 통해서 해외의 다양한 친구들을 만났고 외국의 문화도 배울 수 있었다.”라며 “처음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로 협력하며 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대만 친구들과 많이 친해졌다. e-ICON 세계대회를 통해 해외 친구들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충남 삼성고 김기연·김보현 학생은 “무의식적으로 욕설이나 차별적 언어를 사용하는데, 무감각해져 있거나 뜻을 모를 수 있다. 키보드로 단어를 검색하면 욕설과 차별적 언어를 걸러주는 앱을 개발했다.”라며 “학교 정보시간에 익힌 C언어와 대학생 자원봉사자 도움으로 외국인 친구와 협력해선 뭔가를 이뤄냈다는 성취감이 크다. 전 과정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보람을 느낀다.”라고 설명했다.

**문화 다른 학생, ‘글로벌 협력’ 과정에서 성장**

이번 대회의 주제는 국제연합 지속가능발전목표. 학생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큰 영역에서 인문사회(수학교육, 안전위험, 생활습관, 빈곤문제, 게임중독, 글로벌 인재양성), 환경(기후변화, 도시환경, 사막화, 지구온난화, 생태계, 수자원절약), 건강(식습관 개선, 청소년정신건강, 노인건강, 의학), 과학기술(화학, 물리학, 증강현실) 등 다양한 세부 주제를 정하고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AR 코어(증강현실 구축 키트), MAI(MIT App Inventor)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또한 e-ICON 세계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부산대학교, 가천대학교, 단국대학교의 관련 분야 전공 학생 21명이 기술 멘토로 참가하여 학생들을 공동으로 지원하였다. 부산대 김수현(컴퓨터공학과) 학생은 “고교생들이 앱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과 번역을 돕고 있다.”라며 “코딩 등 기술적인 부분을 도와주고는 있지만 앱 개발에 대

**글로벌 환경에서 해외의 친구들과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고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성장을 경험하였다.**

7 글로벌 협력이 이뤄지는 e-ICON 세계대회 현장

8 비주류 국가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앱을 개발하여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미림여자정보과학고 학생들과 말레이시아 학생들



한 학생들의 의지와 열정을 보면서 어린 친구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팀으로 구성된 학생들은 함께 합숙을 하며 팀별 어플리케이션을 완성하고 개발 배경과 구동 방법 등을 시연한 홍보 동영상도 제작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에서는 포용적,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한다는 대회 취지를 살린 의미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대거 개발되었다. ‘학습 자료가 적은 비주류 언어를 3가지 언어로 함께 배울 수 있는 언어학습 앱’(미림여자정보과학고·말레이시아 팀)을 비롯해 ‘차별적 언어습관 개선 앱’(충남삼성고·태국 팀), ‘시각장애학생의 학습참여를 위한 스마트기기 활용 정서적 지지 및 학습이해 보조 앱’(인천과학예술휘재고·우즈베키스탄 팀), ‘재난 상황 이후 복구를 돕기 위한 용접기술 학습과 실습 장려 앱’ 등 21개의 교육용 앱을 선보였다. 특히 비주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언어학습 앱을 선보인 팀은 심사위원들로부터 내용의 혁신성, 팀별 협력도, 발표력 등을 인정받아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APEC교육협력원 이승진 국장은 “e-ICON 세계대회는 글로벌 협력을 통해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경쟁이 아닌 협력에 방점을 찍고 있다.”라며 “이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글로벌 협력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미래의 협력은 일상적이면서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인데, 이 대회를 통해 그런 가치와 경험을 배워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㉔



**e-ICON 세계대회 참가국 교사들의 말! 말! 말!**

본 대회의 가치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교사가 한 그룹을 이루어 협업하는 과정에서의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팀의 교사는 두 국가(한국, 미국) 학생들을 잘 이끌어주었습니다. 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감사하며, 한국을 비롯한 모든 참가자에게 뜻깊은 경험을 제공한 대회였습니다.

**Dr. Peter Gabor 교사, 미국 Thomas Jefferson High School for Science and Technology**

본 대회는 아주 좋은 경험이라, 잊지 못할 것입니다. 행사장소, 제공되는 음식 및 교통편 모두가 만족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영진은 행사 내내 친절했습니다. 향후 보다 많은 국가에 참여 기회가 확대되길 바랍니다. 시상식 전부터, 저는 본 대회와 같은 국제 협력의 기회를 통해 이미 우승자의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회 중 참가자 학생들이 미래를 직접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대회에 참가하여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Dr. Cheryl Kader 교사, 남아공 Crawford College Pretoria**

운영진의 헌신적인 준비와 진행, 그리고 대학생 멘토 선생님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대회였습니다. 특히, 대학생 멘토선생님들은 앱 개발에 관한 조언뿐만 아니라, 참가자 학생들의 미래 진로 및 인생 상담까지 허심탄회하게 해주었습니다. 해외참가자와의 교류, 협업, 그리고 대학생 멘토와의 교류까지, ICT 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인 역량강화에 큰 도움이 되는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조명연 교사, 대전동신과학고**



# 2019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개최 “장애를 넘어 미래사회 함께 준비해요”



“쉿,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지금 시각장애 학생들이 ‘호텔로’ 게임 결승전을 진행 중이거든요.”  
전국의 특수학교(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을 위

한 ‘2019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이 지난 9월 3일부터 4일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되었다.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넷마블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페스티벌은 역사가 17년 차에 달한다. 장애학생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2003년부터 시작한 전국 특수교육 정보화대회가 이번 페스티벌의 전신이다. 그 후 장애학생들의 창의적이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만들어졌던 e스포츠대회와 합쳐지며 2015년부터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 정보경진대회·e스포츠대회 동시 진행

‘2019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정보경진대회와 e스포츠대회로 동시 진행되었다. 한글, 파워포인트 등 문서작성 실력을 겨루는 정보경진대회 16종목을 비롯해 ‘호텔로’, ‘하스스톤’, ‘마구마구’, ‘스타크래프트’ 등 e스포츠대회 11종목을 운영했다.  
대회에 앞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의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총 1,837명이 참가한 지역 예선이 펼쳐졌다. 이날 서울에서 펼쳐진 본선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2개 분야로 나눠 진행했으며 466명의 본선 진출자들은 대회와 함께 1박2일 동안 5G를 활용한 혼합현실(MR), 키오스크, 로봇코딩교실, 드론조정 등 첨단 IT기술을 체험해 보고 다양한 축하공연을 함께 즐기며 소통했다.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종목인 스위치볼링에 참가한 고아라(전북푸른학교) 학생에게 소감을 물어보니, 지도교사가 내민 태블릿에 ‘좋아요’라고 입력했다.



행사장 안에는 로봇코딩 등 다양한 체험존이 함께 구성됐다.



장애학생들이 손수 커피를 만들어 판매한 바리스타관



장애학생이 자원봉사자의 설명을 들으며 게임을 체험하는 모습



'스타크래프트'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

로봇코딩부터 ‘스타크래프트’까지  
지난 7월 지역 예선 거쳐 466명 참가  
장애·비장애 구분 없는 큰 잔치 열려

### 드론, VR게임 등 다양한 체험존 운영

체험존에서는 로봇으로 다양한 인지훈련 시스템을 배워보는 두뇌트레이닝 콘텐츠 ‘로보케어’와 드론 체험이 가능했다. 장애학생의 진로개발과 직업훈련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VR게임 ‘버추얼 키친’과 ‘버추얼 바리스타’도 운영했다. 또, 로봇코딩교실을 통해 장애학생들이 정보통신분야(ICT)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도록 구성했다.

이밖에도 장애이해 공감 사진전, 공주정명학교 학생들이 손수 커피를 만들어 판매하는 바리스타관, 게임크리에이터 사인회 및 야외광장과 테라스에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해 대회 참가자들의 시간을 풍성하게 해주었다. 이튿날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우승자뿐 아니라 페어플레이상도 함께 시상함으로써 승패의 중요함보다 함께 가는 화합의 장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를 넘어 신체적 제약과 편견 없는 페스티벌’을 모토로 선의의 경쟁이 펼쳐진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기대해본다. ②

# 교육부·국가교육회의 등 4개 기관 공동 '2030 교육포럼' 日 수출규제에 대학·기업 모여 기술주도권 강화 모색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드러난 우리나라의 부품·소재·장비산업의 대외의존성과 산업구조의 기술속련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학교육 및 연구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정세균), 국회의원 박경미와 공동으로 9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 기술주도권 강화를 위한 대학교육·연구의 역할'이란 주제로 『2030 교육포럼』을 개최하였다.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는 "경쟁력 확보가 절실해 지고 있으며, 이 중심에 기술력과 질 높은 인력이 있다."라며 "교육과 연구의 심장인 대학이 그 중심에 있다. 미래사회 기대에 부응하는 주체로 자리 잡기 위해 신산업을 발굴하고, 견인하는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포럼에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R&D 혁신과제 △대학의 장기적·도전적 연구개발 촉진방안 △연구기술 개발 지역거점 플랫폼 구축 △산업과 연구의 연계

강화방안 △부품·소재·장비 분야 인력양성 △대학 산학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역과 산업에 밀착하는 광역단위 고등 연구기술개발 플랫폼 구축'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상동 경북대 총장은 우리나라의 현 산학협력을 '되비우스' 상황으로 진단했다. 거점 국립대는 전통적 교육기능을 강조하고 정부는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것. 특히 정부·기업·대학이 서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상황으로 혁신을 이끌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김 총장은 "광역단위 대학을 주축으로 한 '지역혁신 클러스터 플랫폼' 구축하고 '지역인재-지역기업-지방정부'를 하나로 묶어 지역산업 및 창업 생태계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기업의 대학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에 대한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되었다. 김경도 진영글로벌 공동대표는 "국내 소재·부품기업들이 기술독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을 교육하고 양성할 수 있는 인하우스(In-House) 형태의 소재·부품기업 클러스터형 대학 연계교육과 커리큘럼을 신설해야 한다."라며 "특히 기술부문에 탁월한 장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기술사 및 기술자격증제도를 강화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날 송은주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장은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을 강조했다. 특히 송은주 과장은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신설, 올해 1,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라며 "대학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해서 대학-지자체-산업체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②

##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유아 학습권 보장·회계 투명화 등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으로



패널  
이지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구영목 부산 해화병설유치원 부장교사  
이상연 양명중학교 교사  
한경아 고양 아이사랑유치원 학부모  
사회: 이순이 편집장

일시 2019년 8월 29일(목) 오전 10시  
장소 서울역 회의실  
정리 양지선 기자

최근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의 폐원기준을 수립하였으며, 교육청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 교사 처우개선 추진 등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비롯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 정책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순아



이지은



구영목



이상연



한경아

### 유아 학습권 보장

**사회**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과 학부모 두 분을 모셨는데요. 그동안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고민과 어려움을 정책담당자와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교육부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정부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또 전국의 국공립 유치원 현황과 원아 규모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이지은** 2019년도 기준으로 교육부 전체 예산 74조 원 중 유·초·중·고에 투입되는 예산이 59조 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합니다. 만3~5세 대상 누리과정 지원금은 3조 8,000억 원 규모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모두 지원되고, 유치원에서는 방과후 과정도 함께 지원되고 있어요. 전체 유치원 규모는 저출산 영향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총 유치원 수는 올해 기준 8,837개원으로 작년보다 184개원 감소했고, 원아 수는 4만 명이 줄었습니다.

**사회** 지난해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논의가 정말 뜨거웠는데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아의 학습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다들 이견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학부모 입장에서 하실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상연** 네, 저는 맞벌이 중이어서 지난 사립 유치원 집단휴업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주말도 아닌 주중에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아이들을 볼모로 유치원 측이 이권을 챙기려 하는 처사로, 교육기관과 교육자의 자세가 아니죠. 물론 유치원의 집단행동을 억지로 막을 순 없지만,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구영목** 교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치원 집단행동으로 많은 혼란이 야기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맞벌이 학부모님들의 경우 더욱 당혹스럽고 당장 아이들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타협하고 의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가장 우선으로 뒤야 하겠죠.

**이지은** 유아 학습권은 이처럼 유치원 집단휴업이나 폐업과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먼저 유아 학습권의 개념을 설명해드리면 헌법 제3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었고,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에서도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부 사립 유치원 비리 사태가 불거지면서 교육부에서는 유아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유치원 폐원 기준을 확립한 것입니다.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폐쇄를 인가하려면, 기존에 다니던 원아가

인근 유치원으로 배치될 계획을 담은 '유아지원계획'이 적절하지, 폐원에 관한 학부모 의견은 어떠한지, 폐쇄 예정 시점은 적절한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육 여건에 따라 유아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들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실제로 유치원 폐쇄를 인가하게 될 경우 유아들의 전원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교육감이 확인할 의무도 부여하여, 더 이상 폐원으로 인한 학부모와 유아들의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회**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도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이지은** 네, 현재 학부모들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단설유치원 및 병설유치원을 신증설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당초 목표치보다 많은 702개 학급을 확충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국토교통부와 MOU를 체결해 대규모 택지개발 등의 경우에는 공립 유치원을 중심으로 확충하고, 유치원이 이미 포화상태인 구도심 지역에는 사립 유치원을 교육청에서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으로 유형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국에 매입형 유치원 40여 개원이 새롭게 생길 예정인데요. 이로 인해 보다 많은 원아들이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경아** 저는 유치원을 선택할 때 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데. 병설유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 법적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우선순위를 주다 보니 일반 가정의 유아는 병설유치원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추첨에서 떨어져 아이를 사립 유치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이가 다니는 사립 유치원은 인근 병설유치원 보다 한 달에 10배 정도 더 비싸더라고요. 물론 유치원마다 비용 차이가 있겠지만, 비용도 저렴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좋은 국공립 유치원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연** 병설유치원은 대부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데,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립 유치원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지은** 말씀하셨듯이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을 고려해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최대한 방과후 돌봄 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에듀케어'로 오전 7시~오후 8시까지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고 있죠. 통학 버스도 지난해 195대를 확충했습니다. 이외에도 국공립 유치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교육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영목** 국공립 유치원이 늘어나는 만큼, 반대로 사립 유치원에서는 원아 수가 감소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립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로서는 다양한 교육기관이 생

기는 만큼 현재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균형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사회** 다양한 유형의 유치원을 늘려나감과 동시에 각 기관의 운영이 투명하게 이뤄져야겠죠. 자녀가 다닐 유치원을 선택할 때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유치원 관리·감독 역할을 다시 점검해 볼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지은** 그동안 유치원은 회계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했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먼저 사립 유치원에서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사용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올해 3월부터 도입했습니다. 1단계 도입 대상인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 568개원이 참여했고, 내년 3월에는 전면 도입됩니다. 사립 유치원도 유아교육법상 학교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유치원비, 누리과정 지원금, 현장체험학습비 등이 전체 교비회계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제 수입부터 지출까지 전체 과정이 에듀파인 상에 기록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이 강화됐습니다.

**구영목** 저희 유치원은 현원 200명 이상의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 유치원인데요. 올해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 써보니 복잡하더라고요. 교육청을 통해 여러 차례 교육을 받으니 지금은 사용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앞으로 에듀파인이 도입될 유치원에는 전문인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은** 현재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함께 에듀파인 교육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대표 강사를 양성해 시도별 전달교육, 1대1로 찾아가는 멘토교육, 온라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전면 도입될 사립 유치원 약 4,000개원에서 이미 연수가 진행 중입니다.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계 용어 자체가 낯설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회계교육과 에듀파인 시스템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교육의 질 개선 방안

**사회**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만큼 특히 선생님들에게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이 요구되는데요. 유치원 교사로서 느끼는 소회를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도 말씀해 주십시오.

**구영목** 유치원 교사들은 한 아이의 인격이 완성되는 시기의 교육을 담당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체가 낮은 편이라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교사의 질을 올리기 위한 방안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은 급여 기준 자체가 낮고 각종 수당 지급이 매우 열악하여 국공립 유치원과 보수 격차가 큰 것이 현실입니다. 유치원 교사들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만들고 교육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원 처우개선과 복지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지은** 교직원 처우개선은 교육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사립 유치원의 경우 교직원 보수 기준이 전무했었죠. 이번에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사립 유치원 교직원의 보수 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넣도록 했습니다. 유치원 규칙은 정보공시대상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학부모에게도 공개되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치원 교직원의 보수 기준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매월 지급되는 교원기본급보조금이 작년에 59만 원이었는데 올해 62만 원으로 인상됐고, 장기 근속수당 3만 원이 신설됐습니다. 앞으로 시도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금액은 계속 올려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연**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도 해마다 선생님이 자주 바뀌어서 학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곤 합니다. 선생님들의 근무 여건은 결국 관리자에게 달려있는데, 교사가 온전히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학부모들의 참여를 늘리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저희 아이 유치원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가 참여하는 급식운영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아이들의 급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다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만족스럽습니다. 여기에 더해 학부모의 의견이 유치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원평가도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경아** 저는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유치원 생활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마다 교육철학이 있는데,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이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세종시교육청에서는 2017년부터 매일 1시간 이상 바깥놀이를 하게 하는 교육과정으로 아이들의 건강도 증진시키고 적극적인 참여와 흥미를 유도한다고 들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놀 시간이 줄어들게 될 텐데, 유치원만큼은 놀이학교처럼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끌어내는 교육방식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지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급식소위원회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등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내실화할 계획이고, 유치원 교원평가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누리과정을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개정한 만큼 아이들이 충분한 놀이 경험을 통해 몰입과 즐거움이 가득한 교육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는 정부가 책무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유치원은 유아들의 생애 첫 학교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앞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⑦

### 대규모 택지개발

### 등의 경우에는 공립

### 유치원을 중심으로

### 확충하고, 구도심

### 지역에는 사립유치원을

### 교육청에서 매입해

###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 ‘매입형 유치원’ 등으로

### 유형을 다양화하고

### 있습니다.

#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대학혁신 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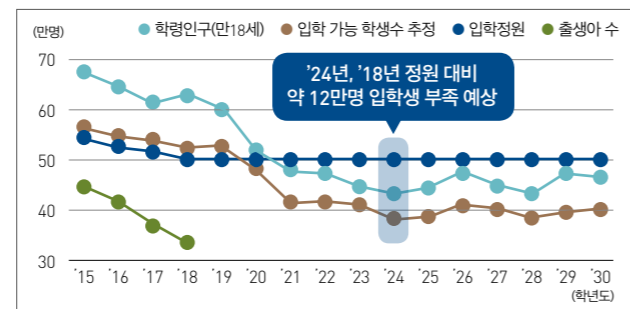
국가의 경쟁력은 대학경쟁력에서 비롯된다.  
대학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이며,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학생인구 급감의 위기상황 속 대학체계 혁신  
‘지자체-대학’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 혁신  
학문간 융합 활성화와 유연한 교육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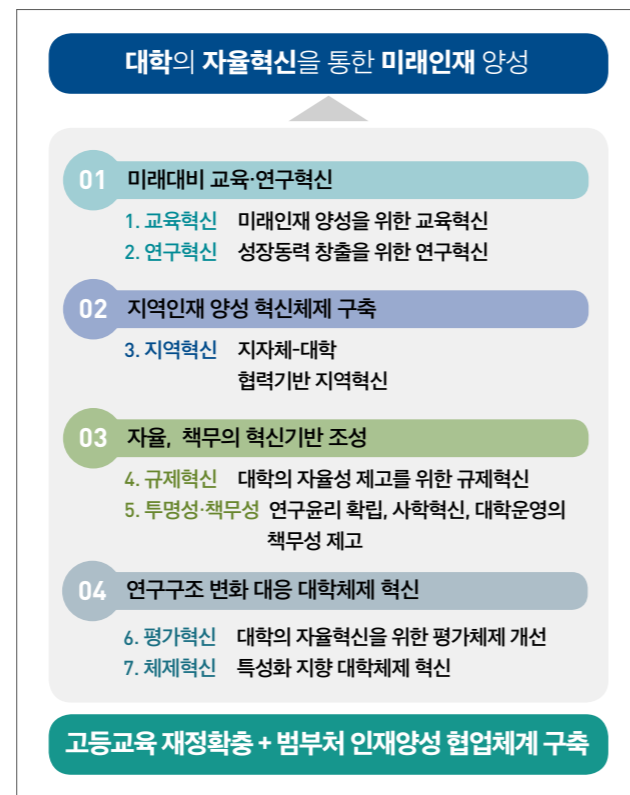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18년 입학정원을 유지할 경우 2024년에는 12만 4천 명의 입학생이 부족해질 전망이다,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입학 가능 학생 수 급감, 등록금 수입 감소로 대학의 재정난 등 대학이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 특히 지방대, 전문대부터 운영의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학생인구가 급감하는 위기상황에서, 우리 대학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는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지난 8월 6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에서 2022년까지 현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면서, 핵심 정책기조를 “혁신의 주체로서는 대학,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지역과 정부”로 설정하고,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이란 비전과 △미래 대비 교육·연구 혁신 △지역인재 양성 혁신체계 구축 △자율·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학체계 혁신의 4대 정책방향,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과제로서 7대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그림1] 우리나라 학령인구 변화 추이



[그림2] 교육부 대학혁신 지원 방안



정책방향 1.  
미래사회 대비  
교육·연구 혁신

**혁신과제 01** 미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을 혁신한다.  
‘학과별·전공별 칸막이’로 인한 경직된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간 융합을 활성화하고 유연한 교육시스템을 갖추도록 융합학과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집중이수제, 융합전공제 등 유연한 학사제도가 대학 현장에 정착되도록 ‘학사제도 운영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산업 등 원천 기술 확보 및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통해 범부처 협업과 지원을 강화하여 사람투자 10대 과제에 따라 분야별 인재양성 방안을 내실있게 마련한다.

**혁신과제 02**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위한 연구제도를 혁신한다.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4단계 BK21 사업에 연구 성과를 질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양적성적을 강조하는 연구문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별 사업단 단위의 분절적 연구를 넘어 대학 본부가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연구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안정적인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위해 신진연구자에 대한 연구와 강의기회 제공을 확대하고 대학 강사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이를 위해, 학술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학술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학술전담기구 설치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정책방향 2.  
지역인재양성  
혁신체계 구축

**혁신과제 03** 지역대학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을 혁신한다.  
지자체와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산업계가 함께 지역대학의 혁신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2020년부터 「(가칭)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신설하여 지역단위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대학이 주도하여 지역별 여건과 실정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방향 3.  
자율과 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04** **혁신과제**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의 규제를 혁신한다.  
고등교육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폐지·완화하는 「고등교육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 현장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각 분야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다.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대학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고등교육 분야의 각종 규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05** **혁신과제**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혁신한다.  
일부 대학의 비리와 연구부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여 교육·연구기관으로서 대학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 마련과 함께 사립대학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대학 회계의 투명성 확대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제고 △사학운영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이를 진단 지표에 포함하는 등 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조성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06** **혁신과제** 대학평가 제도를 혁신한다.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대학의 자율발전을 지원하도록 대학평가의 방향을 전환하였으나, 모든 대학에 대한 획일적 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대학의 평가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교육의 질 제고와 대학규모의 적정화 지원이라는 진단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더 이상 인위적인 감축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체계획에 따라 적정규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진단에 참여하는 대학 중에서 일반재정지원대상대학 여부만을 선정하고 기본역량진단과는 별도로 정량지표와 재정여건 지표에 국한하여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정책방향 4.  
인구구조  
변화대응  
대학체제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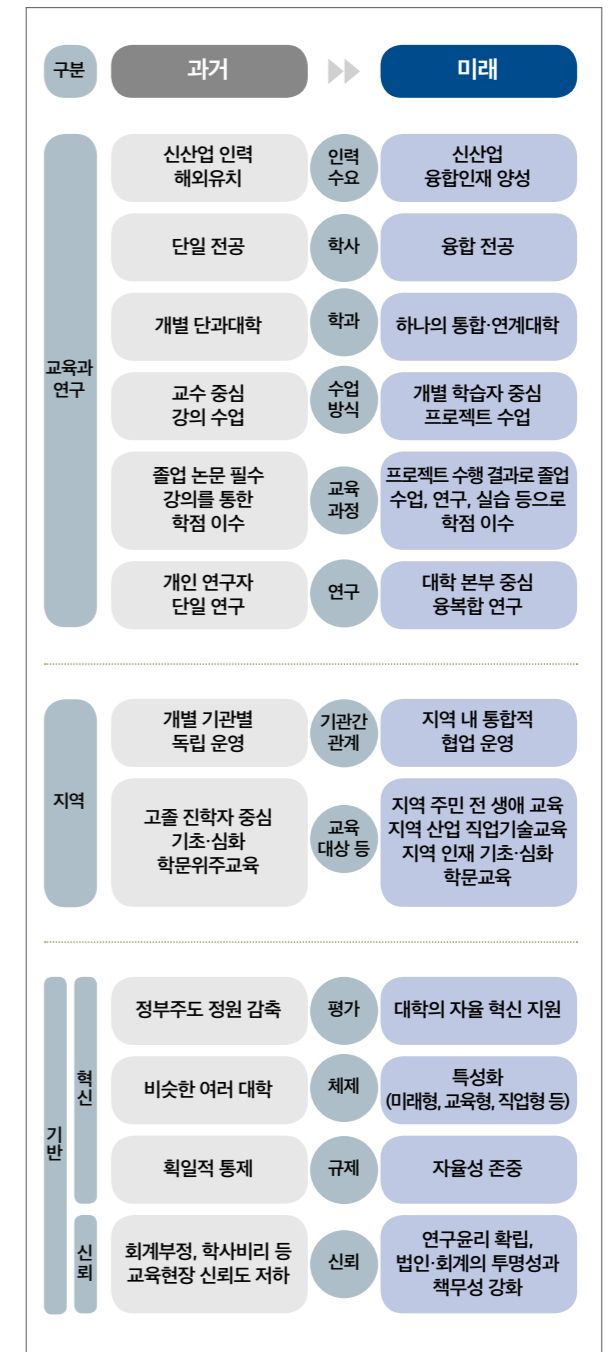
**07** **혁신과제** 설립유형별 특성을 살리기 위해 대학체제를 혁신한다.  
우리 대학들은 설립목적과 특성화의 측면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은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 도입」 등으로 다변화 하며, 전문대학은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성인 학습자 맞춤형 전형을 현행 비수도권 전문대학에서 비수도권 일반대학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생인구 급감 등에 따라 위기대학과 폐교대학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나, 폐교대학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과 대학의 자발적 퇴출 경로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폐교대학의 조속한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후속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폐교대학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의 경쟁력은 대학경쟁력에서 비롯된다. 대학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이며,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대학의 진정한 혁신은 대학이 주체가 되고 지역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노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교육부도 대학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미래사회를 위해 대학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부처로 거듭나고자 한다. ②

[그림3] 우리 대학의 미래 모습



# 현 고1학생 위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 수시 학생부, 정시 수능 위주의 간소화 기조 유지 공정한 학생부종합전형 위해 다수의 평가 의무화 교사추천서 폐지를 통한 제출서류 간소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지난 8월 29일 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법률자문가 등이 참여한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발표하였다.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은 대입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으며 사전예고제와 공정성 확보를 원칙으로 기준을 수립한다. 사전예고제는 수험생이 대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입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는 제도로, 정부는 대입 4년 전(중3 2월말까지)에 대입정책을, 대교협은 대입 2년 6개월 전(고1 8월말까지)에 기본사항을, 대학은 고2 5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고1 학생들은 2020년 5월경 희망하는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학생의 선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대교협에서 발표한 기본사항을 바탕으로 대학은 모집인원, 지원 자격, 전형방법, 학생부 교과 반영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기본사항에는 공정하고 단순·투명한 대입제도를 위해 마련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2018. 08. 17. 교육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주요 내용

첫째,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 후 교육 현장에서 대입의 갑작스러운 큰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교협은 대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의 간소화 방안을 추진하고 전년도와 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간소화란 수험생이 알기 쉽게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대학의 대입전형을 핵심 요소 위주로 표준화한 것이다(학생부교과위주, 학생부종합위주, 논술위주, 실기실적위주, 정시위주).

둘째,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수 평가자의 평가를 의무화하였다.

셋째, 대학별로 대입전형이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 및 공정성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교사, 변호사 등의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권고하였다.

넷째, 전형 관련 서류의 대필, 허위작성 등을 확인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입학취소 등의 적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섯째, 적성고사는 학생부교과위주 전형에 해당되는데 학생부교과 성적보다는 수능 시험과 유사한 적성고사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적성고사를 폐지함으로써 대학별고사를 개선하였다.

여섯째, 대학은 학생을 평가하는 데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중 교사추천서는 교사가 작성하는 학교생활기록부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폐지하였다. ②



## 평화·통일의 꿈 품고 백두산 정상에!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북한과 중국 접

의 길을 고민해 보고자 계획된 이번 체험학습은 △북·중 접경 지역 및 백두산 평화·통일역사교육 현장체험 및 탐방 △중학교·대학교 기관방문 및 간담회 △북·중 접경지역 경제협력지 탐방 및 북한 지역 조망 △백두산 유적지 탐방 및 현장체험 △ 평화·통일교육 전문가 강연 및 북·중 교류협력 전문가 해설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경지역 및 백두산 일원에서 「2019 학생 평화·통일교육 국외현장체험학습」을 운영했다. 이번 체험학습은 동아리 활동과 각종 교내 통일행사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직접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을 따라 걷고, 보고, 느끼며 평화·통일의 길을 함께 나누고 고민해 보는 생생한 현장체험의 장이 되었다. 우리 민족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함께 열어가야 할 평화·통일

박성현(양지고 2학년) 학생은 “백두산을 오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는데, 중국을 통해 멀리 돌아와야 해서 마음이 아팠다.”라며 “자유롭고 평화롭게 백두산을 오갈 수 있는 통일의 날이 어서 올 수 있도록 동아리 친구들과도 이 체험을 함께 나누고 고민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 부산 고교생들, 임시정부 유적지를 찾아가다



부산 고교생 54명이 지난 8월 중국 내 임시정부 유적지를 돌아보며 평화통일 의지를 다졌다. 이들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20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실시한 '임시정부 대장

취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4명도 참가하여 의미를 더했다. 학생들은 1919년 상하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5년 충칭에서 한국할 때까지 27년간의 이동경로를 탐방했다. 학생들은 현지 교통여건과 탐방일정 등을 고려하여 임시정부 유적지 8곳 가운데 상하이, 항저우, 치장, 충칭 등 4곳을 집중탐방 했다. 또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 요인들이 피난처로 활용한 자싱시 매만가와 하이엔시 재청벌서 등 2곳도 방문해 체험활동을 했다.

정 통일미래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 맞는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 현장을 찾아 선조들의 독립에 대한 의지와 열망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나라사랑 정신과 평화통일 의식을 고

대장정을 마친 후 연구보고서팀은 학기 중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UCC 제작팀은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오는 11월 23일 결과발표회에서 상영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팀별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우리가 직접 신문 만들었어요”



강원도 내 고등학생 84명으로 구성된 강원도교육청 학생기자단이 처음으로 신문을 발행했다. 신문에는 ‘다문화가

정 학생들에 대한 인식은?’, ‘수행평가 이대로 괜찮은가’, ‘자사고 재지정 어떻게 봐야 하나’, ‘고교학점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이 담겼다. 특히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강원도 내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로 변하고 있는지 살펴봤으며, 고교학점제 기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진로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봤다. 이외에도 장애·비장애 학생 통합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큰 스트레스

가 된 수행평가를 꼬집는 기사들이 눈에 띄었다. 2016년 춘천지역 고등학생 13명으로 시작한 강원도교육청 학생기자단은 올해 14개 시·군 고등학교 1~3학년 84명과 멘토 14명으로 구성됐다. 지역별로 한 달에 한 번 모여 기획 기사를 쓰는데, 올해는 자체적으로 신문도 발행하는 것에 도전했다. “꿈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그 길로 나아가는 방법은 잘 몰랐는데,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진로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지금의 경험을 발판 삼아 무언가를 더 깊이 이해하고 표현하며 나아가고 싶다.” 지난 2년 동안 학생기자였던 박효진 학생이 남긴 활동 소감이다. 무구유언. 올해 학생기자단의 이름이다. ‘입은 없어도 할 말은 해야겠다’라는 학생들의 소신처럼 학교현장의 다양한 모습들을 학생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길 바란다.



### 광주중앙초, 옥수수과 키 재며 자라는 도심 아이들



광주중앙초등학교(교장 이장식) 학생들이 교내 총 430㎡ 규모 텃밭과 과수원에서 직접 키운 작물을 수확하며 자연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봉숭아를 채취해 손톱에 꽃물을 들이고, 옥수수과 키를 재고, 수박을 수확해 수박주스, 수박화채, 수박연유빙수 만들기 체험 등 도심에서 접하기 어려운 생태교육 활동에 즐겁게 참여했다.

한 학기 동안 진행된 생태교육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하며 성장했다. 화채를 만들기 위해 수박의 씨를 빼느라 집중하고, 탕자나무에 붙은 호랑나비 애벌레의 크기에 감탄하고, 누에 번데기에서 나방이 나오는 모습을 못 봤다며 서운해서 셀 찍히기도 했다. 텃밭은 생명을 사랑하고 탐구하는 자연친화적 체험학습의 장이 되고 있다. 학교 텃밭은 지난 2016년부터 학생들의 발길이 쉽게 닿지 않는 서쪽 담장 아래에 조성됐다. 봉숭아 밭, 수세미와 박이 자라고 있는 에코터널, 유치원생과 1~6학년 학생들이 가꾸는 텃밭 이외에도 학부모와 마을공동체와 무료로 분양해 50여 개의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학생복지실 앞 화단에 앵두, 체리, 사과, 배 등을 심고 과수원을 새롭게 조성해 보다 알찬 생태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 뒤늦게 배운 한글로 ‘인생 레시피’ 쓴 할머니들



지난 8월 22일 서울 창비서교빌딩에서는 할머니, 봉사자, 청소년 3대가 참여한 세대 공감 인생 레시피 <요리는 감이여> 출판 기념회와 초등학교과정 졸업식이 열렸다. <요리는 감이여>는 충남교육청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한 ‘세대 공감 인생 레시피’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한 책이다. 할머니들은 문해교실에서 한글을 배워 요리법을 썼으며, 천안, 공주, 부여

중·고등학생과 자원 봉사자가 재능 기부로 그림과 채록에 참여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을 통해 책을 소개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출판기념회에는 문해교실 어르신 60여 명과 재능기부 학생, 가족을 포함해 1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축하 차 함께한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할머니, 학생들과 북토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요리는 감이여>에 참여한 할머니 중 11명의 초등학교과정 졸업식을 겸하는 행사이기도 했다. 3년간 나이를 잊고 배움에 도전을 한 어르신들이 가족들과 함께 졸업의 기쁨을 나눴다. 책에 참여하기도 한 주미자(만77세) 어르신은 “그동안 글을 몰라 고생했던 힘든 시절을 뒤로하고 밝은 내일을 꿈꾼다. 중학 과정도 참여해 중학교 졸업장을 따고 싶다.” 라고 말했다.



### 지역민 안전교육 책임질 ‘전남안전체험학습장’ 개원



전남 법성포초등학교 진량분교장에 만들어진 전남안전체험학습장이 지난 9월 2일 정식 개원했다. 지하1층~지상 2층까지 연면적 4,980㎡ 규모로 재난안전, 교통안전, 생활안전, 선박항공안전, 학생안전, 화재안전 등 6개 분야 22개 체험장을 갖춘다. 앞으로 전남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게 된다. 전남안전체험학습장은 개원에 앞서 지난 8월 한 달 동안 지역민과 함께하는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했다. 지역민에게 안전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속 안전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민들은 응급처치(심폐소생술), 화재 대피, 소화기 사용법 등을 직접 체험해보며 안전의 소중함을 되새김은 물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받았다. 법성면 채전수 이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처럼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직접 체험을 통해 익힐 수 있어서 좋았다.”라며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 안전을 배우고, 안전을 생활화하게 될 것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㉔



# 2030 대한민국 교육과 우리의 미래 ②늘어나는 폐교, 마을 속으로 학생·청소년·시민이 소통하는 ‘체험의 장’으로 재탄생

- ① 신입생이 사라진 학교 ② 늘어나는 폐교, 마을 속으로 ③ 교원수급은 이상 없나? ④ 지방교육 재정의 헤안 ⑤ 학습복합공간으로 거듭나는 학교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인구감소로 다양한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30년에 5,29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추세로 돌아서 2045년에는 5,105만 명으로 189만 명이 감소될 전망이다. 학령인구는 2019년 554만 명으로 2000년 810만 명 대비 256만 명 감소했고, 2030년에는 58만 명이 추가 감소할 전망이다.

부산의 학령인구도 2019년 32만 명으로 2000년 63만 명 대비 31만 명이 급감하였고, 2030년에는 4만 명이 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은 인구유출과 고령화 심화에 따라 구도심지역 인구가 크게 감소되어 소규모학교가 증가하는 반면, 신도시와 재개발지역은 인구가 집중되어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등으로 인해 학교 신설 요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구도심과 신도시 간의 인구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16년 12월에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도심지 내 거점형 통합학교 육성 및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통합학교 지원안을 수립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건언했다. 부산에서는 최근 10년간 22개의 학교가 문을 닫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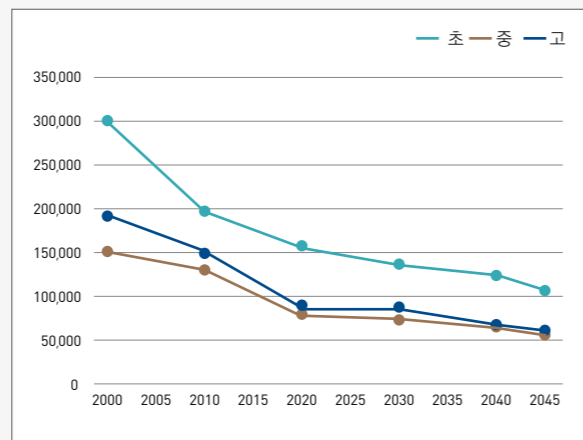
[표] 부산의 인구와 학령인구 추계

(단위: 명)

연도	인구수(명)	학령인구(명)			
		초	중	고	계
2000	3,732,630	296,184	144,883	189,737	630,804
2010	3,476,658	194,704	127,812	143,954	466,470
2018	3,418,011	157,266	76,789	92,861	326,916
2019	3,407,156	159,083	74,594	84,898	318,575
2020	3,396,020	157,774	76,348	80,166	314,288
2030	3,281,203	131,312	70,458	78,575	280,345
2045	2,978,044	107,365	61,077	64,394	232,836

※ 출처: 통계청(성별·연령별 추계인구, 2019. 1.28.)

[그림] 부산 학령인구 추이



이에,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수립한 폐교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통폐합 과정에서부터 폐교 이후 활용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적으로 교육활동과 연계한 다양한 학생 체험시설 조성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익목적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마지막으로 매각을 추진한다.

## 재탄생한 폐교에서 꿈을 찾는 학생들 - 폐교의 화려한 변신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이 깃든 ‘추억의 장소’인 학교는 저출산 문제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밀려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역적 특성을 살려 학생·청소년·시민이 소통하는 장으로 폐교를 활용한다는 목표에 따라 과학·문화예술·환경교육 등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시설로 재탄생시켰다.

이렇게 재탄생한 부산의 폐교는 학생들의 특별한 체험공간이자 지역의 문화 거점으로 다시 살아나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창의력을 키우고 건강을 지키는 체험 공간

방탄소년단 멤버 박지민 씨 모교로 유명한 옛 회동초등학교는 부지 10,508㎡로, 4층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019년 4월 회동마루로 다시 태어났다. 회동마루에는 영양교육체험관과 창의공작소가 들어섰다.

1-2층의 영양교육체험관은 영양(NU)편의점, 나당실험실, 미각교실 등 9개 체험부스와 한식관, 키친스튜디오, 야외 텃밭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조리실습,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3-4층에는 창의공작소에는 디지로그실, 하이테크실, 창의 카페, 메이커라운지 등을 갖췄다. 이곳에서는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디지로그 창의수업과 3D프린트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하이테크 창의수업 등을 진행한다.

회동마루에서 초등학교 학생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체험학습을, 중·고·특수학교 학생은 자유학년제,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여 수업을 받는다. 이용신청이 초기에 마감될 정도로 학교에서 인기가 있으며,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직원, 시민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1 회동마루 영양교육체험관  
2 회동마루 창의공작소

**학리 기후변화 교육센터**

**기후변화 체험교육장**

기장군 옛 학리분교장은 100%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건물로 새 단장하여 2017년 4월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로 문을 열었다.

태양광으로 가는 자동차, 압전소자를 이용한 영상물, 자전거 발전기, 풍력발전체험기 등 체험시설물과 태양열 조리기, 온실 체험 장비 등 다양한 실습기구를 갖추고 있다. 인근 지역명소와 기후변화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학생과 지역사회에 색다른 체험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환경 전문가와 지역 환경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교실'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패시브하우스', '무인도 탈출' 등 학교급별, 학년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 과학체험관**

**기초과학의 산실**

부산과학체험관은 동구 초량동 옛 부산디자인고등학교 부지 8,384.8㎡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16년 10월 개관하였다. 100% 체험전시물로만 구성된 전국 최초의 과학관으로 학생들이 일상생활과 자연현상 속에 숨겨진 다양한 과학 원리를 체험과 놀이를 통해 재미있게 배우는 체험관이다.

야외 과학놀이터와 빛, 전자기, 소리·파동, 지구·생명, 열·역학, 수학·융합 등 6개 영역의 기초과학 체험 전시물 214점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체계적인 과학교육뿐만 아니라, 과학·수학·융합분야 등 기초과학분야를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다양한 생각을 떠올릴 수 있도록 꾸며졌다.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과학문화 체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시물 관람과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는 90% 이상으로 부산 과학문화 확산의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놀이마루**

**청소년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놀이터, 청소년복합문화센터**

부산진구 서면 옛 부산중앙중학교는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건전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복합문화센터인 놀이마루로

변신하여 2016년 9월에 문을 열었다.

놀이마루는 접근성이 좋은 도심 폐교를 활용해 학생과 작가의 재능기부로 만든 체험공간으로 학생들 스스로 꿈을 키우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문화예술진로 체험교육인 '움', 지역축제, 작품전시, 발표회 등 상설 체험공간인 '쉽', 학생·교직원·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틈', 2019년 5월 시작한 운동장 야간 개방 프로그램인 '꿈' 등 4가지 테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중심지로 도약했다.

놀이마루는 학생뿐 아니라 부산시민의 문화예술 놀이터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과 부산 문화예술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부산 유아교육 체험원**

**유아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노는 공간**

유아들이 자연 속에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새로운 공간, 부산 유아교육체험원이 9월 19일 기장군 철마면에 문을 연다.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인 부산유아교육체험원은 부지 4,316㎡, 연면적 2,618㎡에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만들었다.

도심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연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놀이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실내놀이꿈터와 실외놀이꿈터로 구성되어 있다.

실내놀이꿈터는 1층 나무놀이방, 2층은 그물놀이방과 목공놀이방, 3층은 상상놀이방, 행복한 쉼방과 맛있는 방(식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외놀이꿈터는 7-8월에 운영되는 물놀이마당을 비롯하여 잔디마당, 언덕마당, 모래마당, 열매마당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유아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방문 예정 기관은 사전 답사를 통해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오감을 사용해 창의력을 발휘하고 고른 신체발달을 돕도록 구성된 실내놀이꿈터, 실외놀이꿈터는 유아들의 전인적인 성장 발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교육청은 폐교를 학생들의 과학, 문화예술, 환경교육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시설로 우선 활용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하고 있다.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폐교 부지에 2022년까지 가상현실, 로봇, 드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미래교육센터' 2곳을 설립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

- 3 학리기후변화교육센터
- 4 부산과학체험관
- 5 놀이마루 뮤지컬 공연
- 6 부산 유아교육체험원



## 탁 쌤과 산골 학교 아이들의 좌충우돌 한 해 살이 개학



‘너무 집에만 있어서 얼른 학교 보내고 싶네요.’  
‘핸드폰만 붙잡고 있어요. 빨리 학교에 보내고 싶어요.’  
어제 저녁에 학부모들한테 받은 카톡 문자다.  
아침 학교 길에 만난 아이들은 다르다.  
“선생님, 방학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겨울방학은 언제 해요?”  
입술 비죽 내밀며 아쉬워하는 두 아이를 불러 세워놓고  
제발 사진 한 번만 찍혀 달라 부탁했다. 늦여름 들꽃을 배  
경으로 하나 둘 셋, 찰칵! 길옆에 들메밀꽃 달개비 바랭이  
강아지풀 수크렁이 한창이다. 풀밭 주인 바뀌는 걸 보니 계  
절 바뀌는 걸 알겠다. 풀 사이로 가늘게 꽃대를 올린 부추  
꽃 두어 줄기 뽑아 들고 교실로 들어섰다.  
“이건 무슨 꽃?”  
아이들 한 명 한 명 코앞에 하얀 꽃송이를 내밀었다. 꽃  
이 다가갈 때마다 흙, 후읍 쿳구멍 벌룩벌룩 숨을 들이킨다.  
“폭죽 터진 거 같아.”  
“엄마 냄새.”  
“장떡 부칠 때 넣는 건데.”  
한 사람이 한 줄씩 아무렇게나 말을 지어내 노래처럼 불  
러보라 했다.  
가을에 눈이 내렸다./어머니 품처럼 포근한/하얀 이불  
꽃/새 길로 나왔다.  
노래 부르는 동안 꽃병에 물을 채워 ‘하얀 이불꽃’을 꽃  
았다.

“이불꽃 말고 다른 꽃도 있어.”  
우리 반이 새롭게 피어나는 2학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가  
을이 올 거라 기대하며, 임길택 시에 붙인 노래 <부추꽃>  
을 들려주었다.  
하얗게 부추꽃 피어올랐다/이제 가을이 올 거라고/하늘  
에 뜨는 달이 높아질 거라고/하얗게 부추꽃 피어올랐다.  
10시에 개학식 한다고 체육관으로 모이라 해서 교실을 나  
서는데 다시 연락이 왔다. 운동장 공사 중이라 어수선하니  
밖으로 나오지 말고 학급별로 개학식을 하라 한다. 자리에  
앉아서 개학식 어떻게 할까, 의논했다.  
“첫 번째로 뭘 할까?”  
“애국가 불러요.”  
눈이 맑은 영한이가 말했다. 칠판에 ‘1번 애국가’라고 적  
었다.  
“애국가 만든 안익태가 친일 작곡가야.”  
태준이가 말했다. ‘친일’이라는 말에 아이들이 찌푸렸다.  
1학기 사회시간에 유관순 윤봉길 홍범도를 배웠기 때문이  
다. 일제와 친한 작곡가 대신 아이들과 친한 작곡가가 만든  
노래 ‘영미’를 부르기로 했다.  
“두 번째는?”  
“교장선생님 말씀요.”  
학교 행사 때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  
다음은 교장선생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없  
이 되풀이되던 차례니까 안 봐도 훤히겠지.

칠판에 ‘2번 교장선생님 말씀’이라고 적었다. 그런데 교실  
에서 하니까 교장선생님 말씀을 구할 수가 없다.  
“선생님이 대신 하세요.”  
“난 싫은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교장 말씀 흉내는 하기 싫다. 누가  
교장선생님 대신 개학식 인사말을 할까. 교장선생님과 비슷  
한 사람이 교장을 하기로 했다. 보건실에 가서 몸무게를 잰  
다. 윤서 86.5, 현빈 78.4, 태준 73.6, 동철 69.5……. 가장 무  
게감 있는 윤서가 오늘 교장이다.  
개학식 순서를 마저 정해서 칠판에 썼다.  
1. <영미> 노래 부르기  
2. 교장선생님 말씀  
3. 방학 지낸 이야기  
4. 숙제 발표  
5. <부추꽃> 노래 부르기  
“지금부터 2019년 2학기 개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례로, 아이들과 친한 백창우가 작곡한 노래  
<영미>를 불렀다.  
“영미는 늘미기 고갯마루에서 촛불을 켜고 산다. 검은 염  
소와 개 두 마리…….”  
“다음은 교장선생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서가 의젓한 걸음걸이로 앞에 나왔다.  
“차렷, 경례.”  
“효도합시다!”  
학교 인사말은 귀에 거슬린다. 왜 일제히 똑같아야 하는  
지. 70년대 “단결!” 하는 인사말과 뭐가 다른지.  
윤서가 교장선생님 같은 눈빛으로 아이들을 둘러보며, 교  
장선생님 같은 말투로 말했다.  
“여러분이 한 명도 안 다치고 온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방학 동안 부모님께 효도했나요?”  
“…….”  
“어떤 효도를 했는지 한 명씩 말해 보세요.”

“저는 부모님이 사위장을 운영했는데, 거기서 일 도와드  
렸어요. 사위장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고, 그래서 돈 5만 원  
받았어요.”  
현빈이가 말했다. 교장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칭찬했다.  
다음은 태준이가 말했다.  
“저는 부모님과 같이 여행했어요. 원래는 혼자 집에서 계  
입하고 여행 안 가려고 했는데, 여행 같이 가줬어요.”  
방학 동안 중국 하얼빈 외갓집에 갔다 왔나 보다. 교장선  
생님이 “좋은 추억을 남겼구나.” 칭찬했다.  
다음 차례는 숙제 발표. 시를 써온 아이가 시를 읽었다.  
시를 읽는 동안 나머지 아이들은 천천히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와 동무가 쓴 시의 배경이 되어주었다. 몸으로 시의 집  
지어 주기, 느리게 움직이다가 조각상처럼 굳어지며 얼음.  
햇볕 쬐는 고양이  
우리 집 앞마당/고양이 세 마리/햇볕을 쬐다./빛을 더 달  
라는 듯/손을 위로 아래로/요리조리 배를 까며/애고 부린  
다./신의 축복이라도 온 듯/행복해 보인다./입을 짹 하품도  
해주고. (8.21 윤서)  
육먹는 돼지  
눈에 구렁이가 생겼다/멧돼지가 흙탕 놀이 했다/쓰  
러진 벼가 새까맣다/“아고 이게 뭐 일이니.”/할머니 할아버  
지 얼굴이 새까맣다/벼농사 망치고/밭에 옥수수도 다 망치  
고/마을이 새까맣다/사람들이 멧돼지 육을 하며/눈두렁을  
메꾼다. (8.21 성원)  
다 함께 <부추꽃> 노래 부르며 2019년 2학기 개학식을  
마쳤다. ㉠

~~~~~  
필자는 1968년 강원도 양양군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같은 마을에서 살며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다. 현재 전교생이 39명인 조산초등학교 산골 아이들과 산과  
바다를 누비며 작지만 확실한 교육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

## 학교상담 전문가가 전하는 우리 아이 심리 ‘야동’에 빠진 철구

아이들이 음란물을 접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음란물 중독은 학업을 저해하는 수준을 떠나서, 성에 대해 비뚤어진 생각을 갖게 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이런 문제를 적절히 대처하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음란물에 중독된 아이들은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

**문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철구는 공부도 망쳤고 친구도 없다. 하는 일이라고는 교실 뒷자리에 앉아서 늘 잠을 자는 것뿐이다. 초등학교 때 별명은 ‘바지에 똥싼 아이’였는데, 중학교 때는 ‘나무늘보’였고, 고등학교 때는 ‘똥돼지’가 되었다. 깨어있으면 무기력하고, 옆드리면 종일 자서 선생님들이 ‘재 좀 깨워라!’ 하면 아이들은 입을 모아 ‘깨워도 안 일어나요!’ 하고 소리친다. 어느 날 담임선생님이 철구를 깨우자 벌떡 일어나서 ‘비켜라, 내가 나간다!’ 하고 고함을 질렀다. 이 엉뚱한 반응에 아이들은 난리가 났고, 철구는 얼굴이 시뻘게졌다. 이 때문에 상담실로 보내졌다.

**진단** 상담 선생님이 물었다. “철구야, 교실에서 왜 그런 고함을 질렀니? 뭔가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들리던데.” 철구가 부끄러워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나쁜 놈을 물리치고 사람을 구하는 꿈을 꿴어요. 선생님, <쏘우>라는 영화 보셨어요? 주인공이 악당들에게 잡혀서 묶여 있는데, 톱니가 가슴 위로 내려오는 거요. 그 비슷한 거예요.”라고 말했다. “봤지. 히어로 영화던데.” “맞아요. 전 히어로가 되는 상상을 많이 해요. 부끄럽지만 길을 걸어가면서도 상상할 때도 있어요.” 철구는 예쁜 여자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공상을 말해주었다.



상담 선생님이 또 물었다. “이런 스토리는 어디서 얻니?” “게임에서 본 장면으로 상상을 해요.” “게임은 얼마나 하니?” 철구가 히이 하고 웃었다. “저녁 6시부터 아침 5시나 6시까지요.” “거의 12시간 하는구나. 게임만 하니? 야동도 보니?” “야동을 더 많이 봐요.” 아차! 이건 게임중독이 아니고 야동중독이다.

상담 선생님이 철구의 생활을 재구성해보니, 매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컴퓨터로 전투게임을 하고, 10시부터 6시까지 야동을 보고 여러 번의 자위를 하면서 몸을 혹사한 후 1교시 수업 직전에 간신히 등교한다. 그러니 모든 게 망가졌을 수밖에.

**지도** 언제부터 이런 중독이 시작됐을까? 상담 선생님은 먼저 철구가 4학년 때 바지에 똥을 싸서 놀림당한 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여전히 놀림감이 되었던 사건으로부터 출발했다. 중학생이 되어도 아이들은 인정해주지 않았고, 계속 만만한 아이 취급을 했다. 이때부터 철구는 마음의 문을 닫고 게임과 야동의 세계로 들어갔다. 상담 선생님은 안타까워서 혀를 찼다. “철구야,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거니? 나하고 탈출 방법을 찾아보자.” 이 말에 철구는 마음을 열었다.

상담 선생님은 철구의 마음에 넣어붙은 야한 공상에 플래시를 비추기 시작했다.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없앨 수도 있지 않은가. 철구는 창피를 무릅쓰고 자신의 성적 환상(sexual fantasy)과 낮의 절반 이상에까지 침범한 백일몽(daydream)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건 초능력과 위대해지고픈 욕망과 빗장 풀린 성욕이 어우러진 ‘쾌락 영웅 이야기’였다. 탈출의 두 번째 단계는 이런 기괴한 판타지에서 영웅이 되고픈 욕망은 남겨두고, 유치한 부분은 성숙하게, 징그러운 부분은 재미있게 고쳐서 꽤 괜찮은 이야기로 바꾸는 것이다. 탈출의 마지막 단계는 영웅이 되고픈 욕망을 좋은 사람이 되고픈 노력으로 슬쩍 바꿔서, 중독에서 현실로 나오도록 돕는 것이었다.

상담 선생님과 철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찾아낸 위대한 영웅적 행동은 예쁜 여자를 구하는 멋진 남자 역할도 아니고, 수많은 적을 물리치는 무술가도 아니고, ‘새벽 공기를 가르고 아침 일찍 학교에 나타나 골대에 멋있게 슈팅하는 것’이었다. 이 얼마나 영웅적인가! 그리고 저녁엔 어머니가 일하는 가게에서 일을 거들기 시작했다. 마치 실력을 숨기고 소박한 삶을 사는 영웅의 모습처럼.

아침부터 부지런히 운동하고, 주변을 돕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 법은 없다. 철구가 스마트폰을 폴더 폰으로 바꾸고, 컴퓨터를 거실에 내놓은 것도 그 무렵이다. ②

# 친구 같은 선생님 vs 만만한 선생님

저희 반은 동학년 다른 반에 비해서 많이 시끄러운 편입니다. 결핍하면 수업 중에 장담을 늘어놓고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주의라도 주면 오히려 더 소란스러워지기 일쑤입니다. 점점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친구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만만한 선생님이 된 것은 아んな가 괴롭습니다.



## 감정은 친절하되 행동은 단호하게

400만 부가 넘게 팔리며 전 세계 교사들이 가장 많이 산책이라고 알려진 해리 왕의 'The First days of school'에는 교사들이 4번의 단계를 거쳐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수천 명의 교사들을 컨설팅하며 해리 왕은 모든 교사들이 발령 나 도착하는 첫 번째 단계를 바로 '환상'(Fantasy) 단계라고 했습니다. 이 단계의 많은 초임 교사들은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친구가 되는 것이 성공하는 교사라는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준, 평가, 또는 학생의 성취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활동으로 학생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하게만 대하다가 결국 아이들이 만만한게 대하게 되며 '친구 같은 노예'로 전락하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으며 2단계인 생존(Survival) 단계, 생계형 교사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아이들은 친절하게 대하면 만만해지고, 엄격하게 대하면 저희를 무서워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친절함과 단호함은 따로 따로 일어나지 않고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친절함'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공감'입니다. '단호함'은 무섭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뮤지컬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속 마리아 수녀는 제가 되고 싶은 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부르는 노래 중에 'I will be firm but kind', 정말 친절하지만 단호한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만난 첫 해는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3월에 웃으면 안 된다." "3월에는 이를 보이지 말아라." 선배님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친구같은 교사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은 고마워하기보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치사해요"라며 저를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버릇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참다참다 결국 폭발한 제 모습에 아이들은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아이들도 행복하길 원하고 저도 행복하길 원했는데 우리들의 교실은 비극으로 치달았습니다. 그해 12월, 너희들 멋대로 살아보라며 3일 동안 교실을 비웠습니다. 결국 학부모님의 신고로 교실로 돌아온 제겐 차가운 감정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후 시간이 흐르며 '3월에 웃으면 안 된다.'는 조언이 결코 화를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며 무조건 아이들 말을 들어주는 친절함의 교사가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게 하는 것,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학급경영의 대 원칙은 '감정은 친절하되 행동은 단호해야' 합니다. 한 명의 인간으로서 학생을 존중하면서 감정은 수용하며 공감해 주면서 행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아이를 어른과 대등하게 보지 않기에 아이를 야단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교사가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관심 끌기)이 목적이려면, 교사가 야단을 칠 때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교사가 자신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심하게 야단을 쳐도 문제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야단치는 데도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야단치니까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야단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야단맞으며 자란 아이는 야단맞는 게 무서워 소극적인 아이로 변하고, 자신의 행동이 옳는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남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지만 생각하게 되는 그릇이 작은 아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실에서 아이가 우유를 었질렀다면, 이미 아이는 충분히 놀랐을 것입니다. "괜찮아. 선생님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단다." 친절하게 감정을 받아주지만, 감정만 받아주면 안 됩니다. 종종 많은 교사들은 이럴 때 대신 닦아주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행동은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원하는 바를 말할 때는 "~하면 좋겠어."라고 아이가 거절할 여지를 남겨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아이는 존중받는 느낌을 가집니다. 이왕이면 존중하는 질문으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겠니?" 아이가 "후지로 닦아야 돼요."라고 스스로 행동을 선택하면, "지금 네가 말한 대로 해보겠니?"라고 말해주면 충분합니다. 아이는 '실수'를 통해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커다란 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 수업은 원칙대로 늘 진지하고 단호하게

일본의 수업 명인인 노나가 노부유키 교사는 '친절함'과 '단호함'을 시간으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아침자습 시간은 친절함의 시간일까요? 단호함의 시간일까요? '친절함'의 시간입니다. 농담 따먹기를 해도 좋습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 청소 시간, 방과 후 모두 '친절함'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노나가 노부유키 교사가 '단호함'의 시간이라고 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수업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절대 휘둘리지 않을 '단호함'의 시간입니다.

"선생님, 옆 반 체육해요. 우리도 피구해요."

"선생님, 옆 반 컵라면 파티해요. 우리도 컵라면 파티 해요."

종종 친구 같은 교사가 되고 싶은 교사는 기꺼이 아이들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하지만 이때 영웅이 되는 것은 교사가 아니라 이런 의견을 낸 아이입니다. 3, 4월 고마워하다가 5, 6월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2학기가 되면 안 해 주면 도리어 화를 내는 게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런 아이들의 태도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대하며 길러준 것이 아닐까요?

많은 선배들이 '3월에 웃으면 안 된다.'라고 한 이야기의 진심은 사실은 '웃으며 친절함의 교사로만 가지 않고, 시간이 흘러도 함께 정한 원칙대로, 수업은 늘 진지하게 주도권을 선생님이 가지고 가자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학생들은 안정적인 교실을 원합니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친절함 외에 무엇보다 아이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호함은 책임지게 하는 것', '원칙을 지키는 것', 자신의 행동을 자신이 책임지도록 가르쳐 줘야 합니다. 학급 구성원 모두가 정한 약속을 지키고 자기 행동에 책임지는 태도가 내면화될 때에 2학기 교실은 더욱 행복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

# 부정 속의 긍정, 절망 속의 희망을 찾아서

이 세상은 아름답고 행복한 곳인가? 아마도 그럴 것이다. 이 세상은 불행하고 추악한 곳인가? 아마도 그럴 것이다. 생텍쥐페리는 『야간비행』, 『인간의 대지』 등을 통해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만드는 의지, 용기, 우정, 책임감 등을 이야기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인간의 대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었다. 반면에 까뮈는 『시지프스의 신화』, 『페스트』 등을 통해 부조리한 인간의 모습, 이미 필연적 죽음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이 겪는 고통과 재앙과 이기적 행태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이 두 작가는 이 세상에 대해, 아니 우리 인간에 대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해 그렇지 않다. 두 작가 모두 우리 인간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한 사람은 동화적인 명료함으로, 다른 한 사람은 깊이 숙고해야 할 상징성으로 보여주었을 따름이다.

까뮈는 『페스트』의 첫머리에서 이 소설을 연대기라고 말하면서 서술을 시작한다. 이 소설은 ‘서술자’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밝히지 않은 채 오랑이라는 알제리의 한 소도시에 간혀서 페스트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날카롭게 관찰하며 담담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오랑시에 살고 있는 의사 베르나르 리외는 어느 날, 계단에서 죽어 있는 쥐 한 마리를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죽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오랑시는 이 전염병이 페스트라는 판단에 따라 외부세계와 완벽하게 차단된다. 까뮈의 『페스트』는 바로 이 같은 재앙에 직면해서 여러 인물이 보여주는 다양한 행동 양태를 그린 소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설의 핵심적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에 대해, 우리 인간에 대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

## 까뮈의 『페스트』를 통해 본 인간 양상

먼저 이 소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첫 번째 태도는 이기적인 ‘도피적 태도’이다. 신문기자인 랑베르는 자신은 이 도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말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애인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기만의 행복을 찾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탈출을 모색한다. 두 번

## 까뮈의 『페스트』에는 ‘반항적 인간’에 대한 옹호와 함께

우리 인간이 수많은 모순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사랑의 대상이라는 생각이 숨어 있다.

째로 이 소설에서 발견할 수 있는 태도는 파늘루 신부로 대표되는 ‘초월적 태도’이다. 파늘루 신부는 강론에서 오랑시의 재앙은 인간들의 탐욕과 사악함에 대한 신의 징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거대한 나무토막이 이 도시의 하늘에서 소용돌이치다가 닥치는 대로 후려갈기고 피투성이가 되어 다시 솟아올라 마침내 진리의 수확을 준비하는 파종을 위하여 인류의 피를 뿌리는 고통의 광경”을 사람들에게 연상시켰다. 그렇지만 파늘루 신부는 죄 없는 어린아이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신념이 흔들리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이 소설의 가장 핵심인물인 의사 리외가 보여주는 신이 창조한 이 세상이 “죄 없는 어린아이마저 주리를 틀게 만들어진” 곳이라면 “나는 죽어도 거부하겠습니다”라는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

## ‘반항적 태도’에서 발견한 인간의 긍정성

여기에서 우리는 까뮈 자신의 태도이자 이 소설이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유형의 태도, 즉 ‘반항적 태도’를 발견한다. 의사인 리외는 인간이 겪는 비참함에 대한 연민과 성실한 직업정신으로 최선을 다해 페스트와 싸운다. 이런 그의 주위에 탈출을 단념한 랑베르와 신이 없는 세상에서 성자가 되려 하는 타루와 말단 공무원인 그랑, 그리고 아이의 죽음에 충격받은 파늘루 신부 등이 모여들어 보건대를 조직하고 묵묵히 필사적으로 운명처럼 덮친 재앙에 반항하여 함께 싸운다. 그 과정에서 타루와 신부는 감염되어 쓰러지고 페스트는 물러간다. 그리고 지칠 대로 지친 리외는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다. 그럼에도 리외는 의사로서의 자기 직분을 변함없이 성실하게 수행한다. “환자들에게 휴가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또 우리 “인간들 속에는 경멸할 것보다도 찬탄할 것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페스트균은 결코 죽지 않으므로 항상 경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고 말하면서 이 소설의 연대기적 서술자가 바로 자신임을 밝힌다.

까뮈는 『페스트』라는 연대기적 형식의 소설을 쓴 이유를 자신의 분신인 리외의 입을 빌려 “성자가 될 수도 없고 재앙을 용납할 수도 없기에 그 대신 의사가 되겠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행해나가야 할 것에 대한 증언일 뿐이다.”라는 말로 밝히고 있다. 그의 이 말 속에는 ‘반항적 인간’에 대한 옹호와 함께 우리 인간이 수많은 모순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사랑의 대상이라는 생각이 숨어 있다. ②



알베르 카뮈 Albert Camus

프랑스의 소설가·극작가. 1942년 『이방인』을 발표하여 칭송을 받으며 문단의 총아로 떠올랐다. 에세이 『시지프스의 신화』, 희곡 『칼리굴라』 등을 통해 부조리한 인간과 사상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소설 『페스트』 등의 작품을 남겼다.

## 멋스럽게 조각된 도시, 양주

가을은 자코메티다. 자코메티는 사색이다. 바야흐로 자코메티와 사색이 함께 찾아드는 계절이다. 매미 소리도 잦아들고 더위도 한풀 꺾인 것이 계절은 어느새 다른 옷을 준비하고 있다. 여름내 스며든 햇살이 농담을 달리하는 때, 반추된 빛이 발길을 붙드는 시간, 속 이야기가 넘치시 노크를 건네오는 계절. 2019년 가을 여행의 첫 친구는 양주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조각이 되어 빚어지고 있는 곳, 양주로 간다.



1 가나 아트파크  
2 청암민속박물관

### 옛것들의 향수를 간직한 청암민속박물관

자전거 여행객들을 눈에 담으며 양주시 장흥면으로 향한다. 청암민속박물관, 장욱진 미술관, 송암스페이스센터, 가나 아트파크, 자생수목원 등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장흥면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 있다. 이곳은 미술관과 박물관은 물론 창작 미술 스튜디오도 자리 잡고 있어 적지 않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첫 여행지는 청암민속박물관이다. 이곳은 옛것들의 향수를 간직하고자 민속용품과 야생화로 조성한 곳이다. 건담 조형물로 장식한 멋스러운 버스터미널을 지나 아기자기한 카페를 지나온다. 모퉁이를 돌아서자 풀과 나무로 둘러싸인 박물관이 나온다. 줄지어 걸린 70년대 교복이 눈을 채워준다. 나무그림자로 채색된 터널을 지나와 기차길에 이른다. 소박하게 꾸민 다방과 장흥과 평양을 오가는 기차와 녹슨 종. 박물관 숲은 깊어지고 시간은 그새 옛날로 돌아가 있다. 낡은 의자에 앉아도 보고 종소리도 올려보고 그네에서 발도 굴러보며, 상상할 수 있었지만 닿을 수는 없었던 시간으로 들어간다. 흠냄새가 녹진하게 번져오고, 어디서 왔는지 모를 나비가 하늘 거리고, 지붕 위 젖소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발은 청계 다리를 지나 출구에 이르러 있다. 사진 한 장을 남기며 생각한다. 누군가를 기억하고 그 흔적을 간직해 주는 일은 시간을 조각하는 것과 같다고. 지난 시간은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추억으로 새겨지는 것이라고.



3



4



5

### 인간·자연·예술이 공존하는 가나 아트파크

가나 아트파크로 가는 길, 창작 미술 스튜디오 777 전시회가 길동무가 되어준다. 짧은 관람을 곁집으며 가나 아트파크로 들어선다. 2016년 설립 10주년을 맞은 가나 아트파크는 미술관, 조각공원, 어린이 미술관, 어린이 체험관, 공연장, 장흥 제1, 2 아틀리에로 구성되어 있다. 가나 아트파크는 1984년 국내 최초 사립미술관인 토탈미술관에서 출발, 2005년 조각공원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예술이 공존하는 예술복합공간'을 지향하는 가나 아트파크는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함은 물론, 시민들을 위한 예술 교육, 전시 공간 대여 등을 해오고 있다.

어린이 미술관에서 백남준, 리히텐슈타인, 앤디 워홀 등의 작품을 눈에 담고 나와 조지 시겔의 조각작품 '우연한 만남'을 만난다. 갈림길에서 선 여행객에게 꼭 필요했던 한 마디, 'ONE WAY'를 가슴에 담는다. 여행에서 받은 값진 선물을 품고 천천히 블루 스페이스, 레드 스페이스, 옐로 스페이스, 어린이 체험관을 지나 온다. 푸른 잔디를 배경으로 놓여 있는 조각품들을 보며 우치다 사계루, 반 사계루, 장 미셸 빌모트가 설계한 건물을 눈에 담는다. 건물, 조각, 산이 만드는 풍경이 멋스레 어우러지는 것이 가슴이 울린다. 바람의 손을 잡고 마크 퀴, 문신, 한진섭, 류인 등의 작가들이 빚어둔 작품들의 이야기를 귀에 담는다. 차가운데 따뜻하고 딱딱한데 부드럽다. 이 조합을 무엇이라 규정하면 좋을까. 조합 불가능한 것들을 조합되게 하고 조각을 더없이 인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에 '인간의 손'이라는, '온기'라는 이름을 붙여본다.

### 화가 장욱진을 만나는 곳,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여행의 묘미는 생각지 못한 길동무를 만난다는 것일 터.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으로 가는 길에 청련사를 마주한다. 절에 들러 목을 축인다. 천천히 사찰을 돌아 나오며 불상 앞에 선다. 얼마 전 이별을 고한 친구들을 위해 손을 모아본다. 평온하기를, 편히 잠들기를. 장욱진미술관으로 향하는 길목의 권율장군묘를 지나며 아득히 먼 옛날을 그린다. 그 사이 발은 장욱진미술관에 이르러 있다.

장욱진미술관은 까마귀를 그리는 화가, 붓으로 집을 짓는 작가, 가족의 서사를 평면에 담아내는 예술가 장욱진의 작품 230점을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전시해 두고 있다. 푸른 언덕 위의 하얀 집, 그 앞을 지키는 어린 왕자와 저 멀리 문지기처럼 서서 망원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커다란 조각상.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은 산. 건축이 이토록 회화적일 수 있을까. 이것을 예술이라 이름하지 않으면 무엇을 예술이라 할 수 있을까. 건축, 조각, 언덕이 만들어낸 조화에 탄식을 터트리며 미술관으로 들어선다. 빛이 쏟아지는 흰 벽을 배경으로 '집'을 재해석해 둔 작품들을 눈에 담는다. 재현의 재현, 서사의 서사. 화가 장욱진을 중심에 둔 동시대 작가들의 재기발랄 하고 진지한 해석이 공간으로서의 '집'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한다. 인간이 거주하지 않는 곳은 건물에 불과하다. 인간의 온기가 머물기에 건물은 비로소 집이 될 수 있다. 사람은 마음을 내려둘 집을 잃었기에 외로운 것이다. 건물을 잃어서가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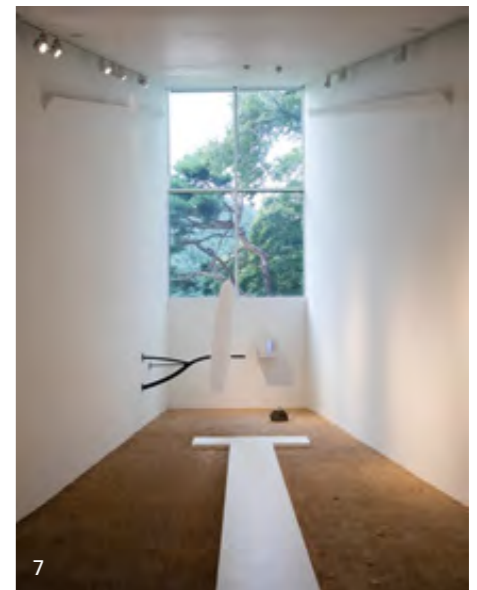
1층 전시실에서 2층으로 향하며 누군가 속을 내려둘 수 있는 집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2층에 이르러 장욱진 화백의 작품을 만난다. 덕소, 명륜동, 수안보, 용인. 작가가 머물렀던 곳곳의 풍경과 가족들을 향한 작가의 시선이 속삭임이 되어 귀를 지나간다. 스침의 여운이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빛이 되어 가슴에 이른다. 온 마음을 다해 무엇인가를 마주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일 것이다. 말없이 속을 울리게 하는.

### 송암스페이스센터, 양주 하늘이 한눈에

미술관을 나와 이른 곳은 송암스페이스센터다. 이곳은 계명산 형제봉에 위치한 천문대로 2007년에 완공되었다. 세계최대 규모를 자랑한다는 송암스페이스센터는 케이블카가 선사하는 풍경은 물론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탁 트인 풍경과 나사(NASA)를 체험할 수 있는 챌린저 러닝 센터, 천공을 가까이 볼 수 있는 천문대까지 갖춘 지상의 하늘이다.



6



7

34 가나 어린이 미술관  
5 조지 시겔의 조각작품 '우연한 만남'  
67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둥글고 투명한 원형 하늘에서 양주를 내려다본다. 케이블카와 미술관과 지나온 길과 양주에서의 시간이 하나의 형상이 되어 눈을 채워온다. 오늘 하루가 양주라는 도시가 빚어내는 조각작품이 되어 안긴다. 이대로 여행을 끝내기가 아쉬워 장흥자생수목원에 들른다. 있는 그대로의 수목을 보존해 온 자연생태수목원에 들러 숨을 고른다. 고독할 때는 조각을 봐야겠다, 삶이란 더하는 무엇이 아닌 덜어내는 무엇임을 기억해야겠다는 깨우침이 어깨를 두드려온다. ㉠



NEWS BRIEFING

2019. 08.

내년부터 전국 마이스터고 51개교 고교학점제 도입



교육부가 2020학년도에 전국 마이스터고 51개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한다. 마이스터고는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학점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2022년에 특성화고와 일반고에 연차적으로 부분 도입한다. 2025년에는 전체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운영 제도를 말한다. 마이스터고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 1학점 수업량은 현행 17회에서 16회로, 총 이수학점은 현행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적정화하여 학사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학생들은 전공 학과(과정)와 타학과 과목을 융합 이수할 수 있는 길이 확대돼 직무경로가 다양해지고, 산업체·(전문)대학 등 지역사회 학습장을 활용한 학교 밖 학습경험이 학점으로 인정돼 전공 실무 능력도 기를 수 있다. 과목별 이수 과정으로는 교사가 최소 성취수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미도달 예방 지도와 보충학습 과정을 실시하는 등 책임교육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6만 명... 신체폭행 줄고 정서폭행 증가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양상을 살펴보면 신체폭행, 성추행·성폭행, 금품갈취 등 물리적 학교 폭력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 정서적 폭력 비중이 증가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4월 한 달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전체 410만 명 중 372만 명(90.7%)이 답했다. 조사 결과 전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6%로 6만 명에 해당하며, 지난해에 비해 1만 명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피해응답률이 3.6%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0.8%, 고등학교 0.4%로 조사됐다. 피해유형별로는 언어폭력(35.6%), 집단따돌림(23.2%), 사이버 괴롭힘(8.9%) 등의 순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사이버 괴롭힘의 비중이 스토킹(8.7%) 보다 높아지는 한편, 신체폭행의 비중은 '17년부터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와 하반기에 시행될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참고하여 12월 중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4)'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일자리 잃은 전직 강사 연구비 지원 나선다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강사들을 위해 연구비가 지원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2,000과제를 추가 선정하기 위해 오는 9월 1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은 예술·체육학을 포함해 인문사회 분야 전·현직 강사가 연구경력 단절 없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강사법 발효에 따라 연구안정확충이 긴요해, 추경으로 28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본예산 1,282과제를 합쳐 총 3,282과제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연구 역량이 우수한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가 해고 등 사유로 연구를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과제당 1년간 연구비 1,300만 원(기관지원금 100만 원 별도)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강사로 채용되지 않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최근 5년 내 대학에서 강의 경력과 연구업적이 있어야 한다.

이번 추경 사업부터는 소속기관이 없거나 추천기관 등을 섭외할 수 없는 연구자의 경우 대학의 확인 및 승인 절차 없이 한국연구재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선정평가는 요건심사, 전공평가, 종합평가의 3단계로 이루어지며, 신청자격 충족여부, 연구의 창의성, 연구계획의 우수성 등을 평가한다.

교육부 내년도 예산안 77조 2,466억 원 편성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2조 3,303억 원(3.1%) 증가한 77조 2,466억 원으로 편성했다. 2020년도 예산안 77조 2,466억 원은 ①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교육 투자 확대, ② 직업계고 활력 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③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④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공간혁신, ⑤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9년 본예산 대비 9,126억 원(1.5%) 증가한 60조 2,958억 원을 편성하였다.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3조 7,846억 원), 고교무상교육(6,594억 원) 등 공교육 투자를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등교육 부문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대학 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년 본예산 대비 7,251억 원(7.2%) 증가한 10조 8,057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 대비 증가율(7.2%)도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907억 원(25.6%) 증가한 9,342억 원으로, 전문대학혁신지원(2,908억→3,908억)·고졸취업활성화 지원(780억→1,351억)에 중점을 두고 2년 연속 25% 이상 대폭 확대됐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안은 4,966억 원 증액된 5조 777억 원을 편성했다. ㉞

지난호 독자 리뷰



**[ 특별기획 \_ 고교 무상교육 시대와 새로운 도전 ]** 교육기회의 평등을 제공하고자 중학교 의무 교육부터 시작하여 무상급식 등 차근차근 발전되어 왔다. 나도 고등학교 입학 후 교재비와 수업료 등 생각보다 많은 비용에 놀랐던 경험이 있다. 다행히도 이제 무상교육이 실시되어 많은 학생들이 비용을 신경쓰지 않고 교육을 받게 되었다. 교육정책들이 점점 학생 중심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이 뿌듯하다. 모니터단 김고운

**[ 꿈이 영그는 현장 \_ 경기 이의초등학교 '세종도서관' ]** 학교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대출해주는 곳이 아닌 다양한 활동과 배움이 펼쳐지는 공간이다.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전문인력 배치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이 제대로 도서관을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우리 아이들이 더 자유롭게 생각하고 더 많은 꿈을 꾸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모니터단 조혜리

**[ 교육포커스 \_ 2030 대한민국 교육과 우리의 미래 ①신입생이 사라진 학교 ]** 학생들의 수는 줄어 들지만 그만큼 학교를 줄여 효율성을 강조하기보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말에 공감이 된다. 협동학교 운영과 농어촌학교의 특색프로그램 운영 등 질 높은 교육기회를 위해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역주민들의 노력이 더해져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인구 유입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안심이 된다. 모니터단 배지은

ENENT

9월호 <특별기획>을 읽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 )이다'**의  
빈칸을 자유롭게 채워주세요.

다음 달 5일까지

'행복한 교육(<https://happyedu.moe.go.kr>) 홈페이지 ⇨ 이벤트 참여'에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께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02-2271-0992



주민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백운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길고랑로46길  
김세훈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동로123번길

**발행일** 2019년 9월 15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편집인** 대변인 한상신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최성부  
사무관 박대선 주무관 박형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대변인실 323호

**편집실**  
**편집장** 이순이  
**기 자** 양지선 (객원)김혜진  
**사 진** 김경수 이대원  
**디자인** 김자영  
**마케팅** 류광민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TEL 02-2271-0992

#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2020년 교육부 예산안

77조  
2,466억 원  
편성

**공교육 투자 확대로 교육비 부담 경감**

- ✓ 고등학교 무상교육 6,549억 원  
'20년 고2·고3(약 88만명) 대상
- ✓ 교육급여 1,016억원  
고등학교 저소득층 교육급여 인상 : 학생 1인당 29만원 → 42.2만원
- ✓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3조 7,846억 원  
만 3~5세 약 120만명 대상

**전문기술인재 양성 직업계고·전문대 활력 제고**

- ✓ 직업계고 지원 강화 1,351억 원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18억 원), 기업현장교육지원사업(205억원) 등 신설
- ✓ 전문기술인재장학금 71억 원  
전문대 우수학생 약 1,000명 대상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지원

**대학혁신지원으로 우리 대학의 경쟁력 제고**

- ✓ 대학혁신지원사업 8,035억 원  
지역혁신형 대학 유형 신설 : 1,080억원
-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3,908억 원  
후진학선도형 대학 확대 15~25개교

**세계 수준의 미래 핵심인재와 학문후속세대 육성**

- ✓ BK21 플러스사업 3,839억 원  
'20. 하반기부터 4단계 사업 추진 : 연간 인재양성규모 1.7~1.9만명으로 확대
- ✓ 인문사회기초연구 1,851억원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연구비 지원 : 540억원

**청년들의 출발을 든든하게 지원**

- ✓ 맞춤형국가장학금 지원 4조 18억 원(+32억 원)
- ✓ 학자금 대출·주거부담 경감  
- 학자금 금리지원 확대(대출금리 2.2% → 2%)  
- 행복기숙사 7개소 신축
- ✓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시범운영 지원(10개교) 4억 원

**성인학습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

- ✓ 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 개발 135억 원 (+21억 원)  
AI 등 신산업 분야 포함 신규강좌 140개 개발
- ✓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46억 원 (+11억 원)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사업 신설(15억원)
-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36억 원  
수혜자 확대 '19년 5,000명 → '20년 8,000명

**더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 국립부설학교 시설 개선  
공기청정기(5억원), 치장벽돌 벽체 안전보강(20억원), 외벽 드라이버트 제거 예산(82억원) 신규편성
- ✓ 국립대학 시설·기자재 개선  
- 석면제거, 내진 및 외벽 보강, 화재안전 예방 등 시설 안전예산 증액(+670억원)  
- 실험실습실기자재 확충 및 안전환경조성 예산 증액(+682억원)

**국제교류 증진으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 ✓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  
한국교육원 1개교 신설 해외 한국어 교원파견 확대 : '19년 65 → '20년 132명
-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GKS) 확대  
'19년 870명 → '20년 1,300명
- ✓ 한일 역사갈등 대응 20억원  
일제침탈사 연구 추진

누리과정부터 고교무상교육까지 교육비 부담은 줄이고,  
대학 혁신과 혁신성장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으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